

孔子와 플라톤의 音樂教育思想研究

金 鍾 富

(本會 會員)

〈目 次〉	
I. 序 論	1. 音樂教育觀
1. 研究의 必要性	2. 感性論
2. 研究의 目的	IV. 孔子와 플라톤의 音樂思想과 特性
3. 研究의 方法	1. 孔子의 中華思想과 調和
4. 研究의 制限	2. 孔子의 樂의 精神과 調和
II. 孔子의 音樂教育思想	3. 플라톤의 宇宙論과 調和
1. 音樂教育觀	4. 플라톤의 影像, 象徵과 調和
2. 禮樂論	V. 結 論
III. 플라톤의 音樂教育思想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音樂文化란 그 나라 文化의 進歩를 象徵하는 것이다.

眞理는 萬人에 의해서 구해지는 것을 스스로 원하고, 따라서 音樂藝術은 萬人에 의해서 사랑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音樂을 교육함에 있어 그것을 探究하고 理解하기 위해서는 음악의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敎養과 知識이 必要하다.

本 研究의 音樂教育思想에 있어서 音樂教育은 音樂技能을 대상으로 하는 ‘音樂의 敎育’이 아니고 人間을 대상으로 하는 ‘音樂的 敎育’을 이룸이다.. 이것은 곧 ‘音樂에 의한 敎育’이라 하겠으며, 종래의 音樂敎育이 이 점에서 분명한 가름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단편적인 音樂知識이나 歌唱의 技能만을 기르는 데 汲汲하였을 뿐, 人間の 審美的인 心性陶冶나 생활화된 참 音樂의 파사로움을 경험시키고 체득시키지는 못하였었다.¹⁾ 이 점이 사실상 音樂敎育의 問題라 하겠다. 그렇다면 音樂敎育이 人間形成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이룩하고 있는가.

첫째, 音樂은 人間性 向上에 가장 強한 推進力이다. 音樂은 強하게 人間の 마음속에

1) 柳德熙, 音樂敎育論 (서울 : 開文社, 1983), p. 29.

호소해서 情緒에 작용한다.

둘째, 音樂은 人間生活에 溫情을 가져오게 하고, 여가를 有効하고 즐겁게 이용하는 能力을 기르며, 그것을 發展시키는 것은 개인적인 諸能力의 發達을 圖謀하고 특별한 興味를 증진함과 동시에 가정이나 사회생활에 溫情을 가져오게 한다.

셋째, 音樂은 사회생활에 있어 協調性, 友愛性을 형성한다. 音樂은 音의 世界를 공통의 목표로 하여 추구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각자의 마음으로부터의 協調가 필요하다.

넷째, 音樂은 創造의 태도를 기른다. 音樂을 듣는 것, 연주하는 것 작곡하는 것 등 한결같이 그 사람의 審美的인 양심, 音樂的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순수한 마음, 자유로운 마음이 根源이 된다.

다섯째, 音樂은 國際理解에 有効하다. 音樂의 예술적인 표현이 모든 사람의 감정의 腺을 움직여서 이에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音樂을 통한 理解와 交流는 서로 다른 民族 사이에 言語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問題가 되지 않는다.²⁾ 이에 音樂教育이란 古代 中國 孔子(B. C 552-479)³⁾의 哲學思想에 바탕을 둔 「禮樂論에서 音樂教育의 重要性和 古代 그리스哲人 플라톤(Platon, B, C427-347)의 「音樂 Ethos論」⁴⁾은 人間形成의 價值的 存在임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孔子와 플라톤의 音樂教育의 哲學的인 思想에서 사람이 가져야 하는 稟性的 일부를 일깨워 바람직한 市民의 德性을 지니게 하며 成於樂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⁵⁾ 것으로써 本研究의 必要性을 갖게 되었다.

2. 研究의 目的

音樂教育은 人類의 歷史와 人間의 精神感情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⁶⁾ 孔子와 플라톤의 哲學思想은 音樂教育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바, 그들의 업적과 洞察力이 音樂教育의 基礎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⁷⁾ 그들은 우리 人類가 地球上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오랜 옛날부터 모든 민족의 생활 속에서, 또는 그 생활의 일부로써 音樂이 활용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原始社會에 있어서의 音樂은 生活感情을 표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고, 또한 생활 樣式的 하나였기 때문에 그 社會의 構造를 유지하기 위하여 音樂的인 理解와 技巧

2) 柳德熙, 前掲書, pp. 13-14.

3) 金敬琢, 中國哲學思想史 (서울: 東國文化社, 1955), p. 3.

4) 柳德熙, 音樂教育研究<韓國音樂教育學會論文集, 第4輯> (서울: 學文社, 1979), p. 6.

5) 金鎮喆, 플라톤의 音樂教育思想研究<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教育大學院, 1985), p.i.

6) Charles Leonhard & Robert W. House, Foundations and Principles of Music Educa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72), p. 43.

7) 尹良錫, 共著, 音樂・美術科教育(서울: 韓國能力開發社, 1975,) p. 36.

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볼 수 있다. 原始社會의 教育이란 日常生活이나, 宗教的, 社會的인 行事를 위한 副產物에 지나지 않았다 해도 좋을 것이다.

각 民族의 文明이 전개됨에 따라, 音樂教育도 더욱 더 그 形式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 뚜렷한 歷史的 證거를 古代文明諸國의 文化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⁸⁾

古代中國의 文明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孔子의 출현에 따라 音樂은 祭禮의 모든 행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人間의 修養과 國家의 平和를 위하여 重要한 教育的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⁹⁾ 孔子의 倫理 道德精神,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의 大道를 基本관념으로 하고 있으며, 特히 孔子의 學理를 선양하고 現代化하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¹⁰⁾ 古代中國의 經書의 하나인 《禮記》중의 「樂記」編에서는 「樂은 人間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音樂의 教育的 意義가 역설되어 있고, 그것이 그 時代의 重要한 音樂教育的 基礎를 이루었으며, 現代에 있어서의 귀중한 理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樂記」에서는 音樂의 意義를 밝히면서 音樂의 길은 政治의 길과 相通한다고 하여 音樂과 政治의 일치를 역설하였고, 더 나아가 음악은 倫理의 길과 통한다 하여 人間完成에 있어서 音樂이 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¹¹⁾

古代 그리스民族은 音樂을 존중하였고, 이에 따라 音樂教育이 실시되었으며, 그들의 教育에 있어서 가장 重要하게 취급된 教科는 音樂과 體育이었다. 音樂은 人間의 精神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였고, 體育은 신체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¹²⁾ 이 두개의 教科가 서로 調和있게 성취됨으로써 올바른 人格이 完成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특히 音樂教育的 目的은 宗教의 수단에서 벗어나 音樂에 의하여 美的, 道德的으로 調和가 된 人間을 기르는 데 있었고 이것은 뒤에 音樂을 人間教育的 하나로서 맞아들여진 重要한 原因이 된 것이다.¹³⁾ 이 時代의 哲學者,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 C. 384-322)의 音樂教育觀에서 그 基礎를 찾아볼 수 있다.¹⁴⁾

人間教育에 있어서 價値性이 없는 學問의 즐거움은 무익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니 教育學的으로 보아서 知學보다는 德學 내지 樂學을 더 重視해야 하는 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¹⁵⁾ 音樂의 効用이나 教育的인 價値에 관해서 이상과 같은 音樂教育思想의 本質的인 意味로서 다음과 같은 事實을 發見하고, 探究하는 데 本 研究의 目的을 두었다.

8) 尹良錫 共著, 上揭書, p. 37.

9) 柳德熙, 世界音樂教育史(서울: 學文社(論), 1983), p. 25.

10) 張其昀, 孔子學說의 現代의意義(서울: 堂雲出版社, 1981), p. 774

11) 供田武嘉律, 世界音樂教育史(東京: 音樂之友社, 1971), pp. 22-23.

12) 神田豐穗, 世界大思想全集(1)(東京: 春秋社, 1928), 〈플라톤 國家 第二卷〉p. 84.

13) 李貞熙, 環境推移에 따른 嗜好教科의 變因調査研究(碩士學位論文)(漢陽大·教育大學院, 1985), p. 1.

14) 尹良錫 共著, 前揭書, p. 39.

15) 韓國孔子學會, 孔子의 思想과 現代(서울: 思社研, 1985), p.250.

첫째, 音樂教育의 理論의 基礎

둘째, 音樂教育思想의 本質

셋째, 音樂教育의 道德的 價值

넷째, 音樂教育의 生活의 効用

이상의 分類는 教育으로서의 音樂을 단순히 情緒의인 產物이나 理性이나 思想의 統一이라는 등의 概念 이상으로 直接的이고 生命的인 것이라는 認識을 주기 때문이다.¹⁶⁾

3. 研究의 方法

音樂教育은 결코 專門의인 音樂家만을 養成하는 것이 아니며, 넓고 깊은 音樂的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 하겠다.¹⁷⁾ 그러므로 文化人類學者와 比較音樂學者들이 오늘날의 未開發社會를 研究함으로써 原始社會에 있어서의 音樂教育의 發達을 추구하고, 自然的인 環境과 人間이 이룩한 環境 속에서 바람직한 思考와 生活태도의 累積인 文化를 다음의 世代에 傳達하여 오는 過程에서 教育의 目的과 方法도 그 時代의 文化價值에 따라 변천 되어 왔다.

이같이 생각할 때 音樂이 人間教育의 하나로 重要한 分野가 되기까지의 歷史는 音樂自體의 價值에서, 또는 教育的 價值로서 과거의 歷史를 배경으로 하여 來日을 바라보는 創造의 추구가 있을때 비로소 올바르게 마련되리라고 본다.

특히 孔子나 플라톤에 있어서는 이미 이천 수백년 전의 일이라서 一般的인 哲學이나 思想에 관한 著書는 多少 이여지고 있으나, 音樂教育思想에 관한 체계있고 分化된 著書와 資料는 極히 드므렸으므로 單편적인 音樂知識이나 歌唱의 技能만을 기르는 教育方法은 배제하고 人間의 審美的인 心性陶冶나 생활화된 진정한 音樂의 따사로움의 경험을 맛 볼 수 있도록 研究의 方法을 摸索하였다.

音樂教育思想에 接近 方法이 좀 덜 明皙하고, 덜 分明한 그리고 뭉뚱그려진 어떤 狀態에 머물 수 밖에 없는 文化的 與件 속에 進行되어 왔다고 할지라도, 보다 細目을 分化하는 작업으로 試圖하고, 또 가능한 한 科學的이고 人間教育의인 接近으로 研究의 方法을 誘導하였다.¹⁸⁾

4. 研究의 制限

孔子와 플라톤에 관한 研究의 限界는 대개 特殊한 觀點에서 행하여진다. 넓은 意味로서 파악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人生의 全般問題로 확대되는 것이므로, 平居에 있어서

16) 柳德熙, 前揭書, p. 10.

17) 柳德熙, 上揭書, p. 13.

18) 張其均, 前揭書, p. 241.

나, 一般學問 그리고 藝術, 特히 音樂 등의 問題가 모두 接近對象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넓은 範圍의 對象에 대해서 接近하는 方法에는 多少의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分析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感知하는 能力이나 體驗하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점이 바로 東洋音樂教育思想 내지 西洋音樂教育思想에 대한 接近의 難解性이라고 하겠다.

다시 바꾸어 말을 한다면 孔子나 플라톤의 音樂教育思想에 대한 研究者가 稀少한 原因이라 하겠으며, 그렇다고 人類史上 드물게 볼 수 있는 人間, 孔子나 플라톤에 대한 價値를 묻어 둘 수만은 없는 일이므로, 孔子의 《禮記》中 「樂記」와 《論語》에서는 「禮樂論」을 중심으로 하여 東洋哲學의 主流를 이루는 孔子學, 다시 말해서 音樂教育的 側面에서, 直接 人生의 問題에 直面한 孔子의 日常生活, 또한 平居에 있어서의 樂의 精神 및 樂志態度 그리고 詩와 音樂에 담긴 孔子의 「學」과 「樂」의 理想을 그려 制限하였다.

따라서 플라톤의 音樂教育思想에 있어서도 그의 代表的인 著書 國家(Ripublic)와 宇宙論인 「Timaeus」를 주로 하여 西洋哲學的인 觀點, 特히 現代 分析哲學的인 面보다는 플라톤이 志向하는 理想的인 目標로서 音樂의 基礎가 되는 신체의 問題로부터 音樂과 感覺, 音樂과 知覺, 音樂과 情緒, 理象界와 이데아(Idea)와의 관계속에서의 音樂, 音樂의 教育, 指導者 育成的 方策으로서 感性論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한 問題를 記述하였다.

특히 音樂教育的인 面에서 音樂 자체의 藝術的 技能和 理論分析보다는 人間教育으로서의 音樂教育思想에 重點을 두어 德性・高潔(Virtue)을 위한 最上の 本質的인 音樂과 調和로써 制限하였다.

II. 孔子의 音樂教育思想

1. 音樂教育觀

가. 音樂의 教育的 意義

古代中國의 文明은 世界에서 가장 오랜 文明의 하나이다. 先祖를 받들고 古代人의 가르침을 貴하게 여기는 氣風이 강한 古代中國의 사람들은 祭禮의 모든 行事に 있어 奏樂을 神聖視하는 것은 古代 다른 모든 나라와 같지만, 그 후 孔子의 出現으로 音樂은 宗教의 모든 行事뿐만 아니라 人間의 修養, 나라의 平和를 위하여 重要的 역할이 주어지게 되었다.¹⁹⁾ 古代經書의 《禮記》중 「樂記」에 「樂」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音樂의 教育的 意義가 力說되어 있다. 오늘날 그것이 그대로 귀중한 音樂教育原理로 되어 있다.

19) 柳德熙, 前掲書, p. 178.

孔子는 이같이 말하였다. 『사람이 道를 크게 하는 것이요, 道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니라.(人能弘道, 非道弘人)』고, (論語, 衛靈公) 孔子는 學問을 가르침에 있어 그 본 뜻이 사람의 사람된 道理를 밝히는 데 있었던 것이다. 孔子學의 根本 취지는 오직 人格教育이었다.²⁰⁾ 하겠으니, 이를 分析해 말한다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道德教育, 通才教育, 修身教育, 精神教育이다.²¹⁾

《禮記》중 「樂記」에 『노래를 잘 부르는 자는 남에게 가르쳐서 그 목소리나 가락을 내는 方法을 후세에 傳하도록 하고, 學問을 가르치는 자는 남을 引導하여 자기의 學問相 혹은 思想相의 뜻하는 바를 계승시킬 수가 있다. 이런 경우 가르치는 말을 간략하나 취지는 잘 傳하여지며, 表現은 평범하나 內容이 깊고, 비유가 적더라도 그 뜻은 직접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스승이라는 것은 君主가 되는 길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배우는 자는 스승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스승의 뜻이 萬代에 傳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자된 자가 感化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스승은 곧 君子임을 시사하였다. 스승이란 君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는 자이므로 스승을 선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였다.²²⁾

옛날에 백성을 가르칠 때는 입과 귀로 배우고 傳해지기 때문에 소리내어 가르치는 聲敎를 重要視하였고, 소리으로써 사람을 感化시키는 것으로 音樂보다 좋은 것이 없다. 舜이 堯에게 命하여 만아들(胄子)을 가르치니 樂師가 곧 敎師였다. 虞의 學을 成均이라 하는데 均은 바로 韶의 古文이었다.²³⁾ (周禮)는 大司樂이 成均의 法을 장악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樂德, 樂舞, 樂語를 가르쳤다. 〈朱子〉는 『옛날 사람들의 가르치는 法은 禮, 樂, 射, 御, 書, 數이며 그 중 하나도 빠지지 않았고, 그 중 樂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堯가 胄子를 가르칠 때 樂만을 사용하였고, 大司徒의 책동 또한 樂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古代에 소리를 내어 가르치는 것이 敎育의 道法이 되었고, 音樂 또한 敎育의 중심이 되었다.²⁴⁾

孔子는 또 말하기를 『敎育의 目的이란 사람이 正道로 가도록 하고 비뚤어진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도와주는 데 있는 것이라, 우리는 구태여 심하게 대할 것은 없다. 이 소년이 虛心으로 도움되기를 바라 自己 마음을 깨끗이 하여 나아가기를 구하는 바에야 우리는 宜當 잘 그를 도와주고 가르쳐 줘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試하지 않았기 때문에 藝하다』하였다. 스스로 말씀한 것을 들은 바로는, 世上에서 쓰이지 않았던 때문에 藝를 익혀서 이에 通할 수 있었던 것이다. 孔子는 藝를 많이 通하여서 이것을

20) 車柱環, 「論語」(서울: 을유문화사, 1975), p. 107.

21) 張其昀, 前揭書, p. 127.

22) 金鑑沄, 四書五經(禮記)7.8, (서울: 韓國出版社, 1984), 樂記 p. 413.

23) 張其昀, 前揭書, p. 307.

24) 劉白閔, 經學通論, p. 286.

가지고 三千之徒와 칠십 제자를 가르쳤던 것을 알 수 있어서 저절로 疑義가 없어진다. 이로써 (周易)에 이른바 『두루 萬物에 對하여 안다.』²⁵⁾라고 기록 되었다.

나. 音樂教育의 重要性

中國古代文化는 항상 「禮樂」으로 並稱되어 왔다. 그러나 두 觀念 중 禮보다는 樂의 觀念이 훨씬 먼저 출현되었다. 그렇다면 中國의 文化는 樂에서 부터 出發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孔子의 樂에 대한 깊은 관심도 中國古代의 樂敎에 대한 傳承으로 理解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問題삼는 것은 孔子의 樂敎에 대한 전승이라기 보다는 樂의 藝術精神에 대한 새로운 發現과 그 昇華라 할 수 있다.²⁶⁾

中國의 音樂은 생활을 사랑하는 音樂으로, 歌頌이 바로 그렇다. 이러한 생활 音樂은 각종 宗教音樂과 서로 융화되며 충돌하지 않았다. 이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이다.²⁷⁾ 自然에 순응하고 人性을 根本으로 하기 때문에 人間의 戀歌에 대해서도 절대로 배척하지 않는다. 孔子가 樂을 바로 잡는 詩300編도 모두 民間의 戀歌이며 게다가 孔子는 이들을 〈사특함이 없다〉하여 찬미하였다. 音樂을 배우고 音樂을 理解하는데 가장 重要한 것은 技巧에 있지 않고 內涵에 있으며 훌륭한 作品을 創作하려면 演奏를 더욱 完全히 하고 우선 內在의인 데 충실하고 心靈의 경계를 높여야 한다.²⁸⁾

孔子는 特히 音樂을 즐겨하여 音樂理論에 정통했고, 그것의 敎育效果를 重視한 위대한 音樂家였다. 또한 孔子는 樂器의 조작은 물론 古樂에 대한 감상과, 작곡 능력을 지닌 훌륭한 音樂人이었다.²⁹⁾ 〈論語〉에 『孔子가 齊나라에서 韶라는 音樂을 듣고는 석달 동안이나 고기 맛을 잊을 정도로 흥분해서 말하기를 音樂의 效果가 이렇게 위대한 줄을 미처 몰랐다』(述耐)고 한 記錄이 있다. 孔子가 音樂을 鑑賞할 때 그 精神이 깊게 도취되면서 석달 동안이나 고기맛을 잊을 정도로 專念하여 모든 것을 잊었다고 하니, 비록 古今東西의 大音樂家들, 音樂으로 第二生命을 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토록 깊이 심취했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했다. 그리고 魯大師 및 韶樂과 武樂의 長短을 評한 데 이르러서는 音樂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專門家的 안목을 짐작케 한다. 이로써 孔子는 비단 音樂의 감상가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音樂評論家였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孔子는 〈樂〉을 敎材로 삼고 『樂에서 이루어진다』(成於樂, 論語, 泰伯)는 한 마디만 보아도, 樂字 위에 成字을 쓸 정도였으니 그 얼마나 樂敎를 重視했는지를 알 수 있다. 《禮記》의 「學記」에 『大學에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先生은 宵雅의 세

25) 韓國孔子學會, 前揭書, p. 193.

26) 韓國孔子學會, 上揭書, p. 159.

27) 黃友棟, 中國音樂的傳統精神, 見「中央月刊」第7卷 第6期 p. 181.

28) 張其昀, 前揭書, p. 307.

29) 張其昀, 上揭書, p. 49.

편을 노래해서 익히게 한 것은 그 처음에 벼슬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다.』³⁰⁾ 〈周禮〉는 古代中國의 教育制度를 講論하면서 일찌기 『大司樂은 成均의 法을 맡고 이로써 建國의 學政을 다스렸다』고 한다. 成均은 오늘날의 大學에 해당한다. 그런데 大學教育은 音樂으로 指導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孔子的 생활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일 것이다.³¹⁾

孔子는 音樂에 정통하여 衛나라에서 魯나라에 돌아와 雅頌을 바로 잡았고, 樂理에도 밝아서 이에 의거하여 樂章을 정리 하였으며 이론과 응용을 모두 잘 하였다. 《論語》에 『詩로써 정의틀 일깨우고 禮로써 행동을 바르게 하고 音樂으로 人格을 完成하라』(泰伯)는 말이 실려 있다. 詩와 禮를 배운 후에는 반드시 樂을 가지고 人格을 完成하고 樂이란 글자 위에서 人格完成이란 글자를 써서 더욱 그 重要함을 강조했다. 孔子는 音樂教育을 重視하여 제자를 가르치고 몸소 그 重要함을 깊이 느껴 실천하였다.³²⁾ 이같은 것들을 孔子는 일찌기 알았으나 孔子의 音樂教育이 세밀하고 깊음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다. 音樂의 教育方法

孔子는 마음이 지극히 넓은 先生이었다. 그는 개개인 學生의 人生思想을 尊重하였으며, 그는 또 사람마다 저나름대로의 뜻이 있어 억지로 억지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三軍의 領導權은 뱃을 수 있으나 匹夫의 뜻은 뱃을 수 없느니라』—(三軍司馬也, 匹夫不可奪志也—論語, 子罕)고 하였다. 學生들이 서로 부대끼어서 鍊磨하는 切磋琢磨方法을 써,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眞理를 깨우치도록 하였지 결코 남에 對해 꼭 내 뜻대로 되어 주도록 實하지는 않았다. 그는 또 말하기를 『君子는 和하면서도 똑같으려 하지 않으나, 小人은 같으면서도 和하지 못한다.』(論語, 子路)하였으니, 이 두 마디 말은 실로 自由世界의 教育方針이 되기에 足하다 하겠다.³³⁾

孔子의 教育은 言語를 통한 知識教育과 生活을 行爲教育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그려냄에 있어 生命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生活의 再照明을 통하여 그의 人格의 世界와 人格의 경지를 그려내는 것도 한 方法이라고 생각된다. 孔子의 內面的 人格世界나 生命경지는 그의 구체적인 生活, 특히 詩와 音樂의 生活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客觀的으로 멀리서 관찰하는 方法, 生活을 피부로 직접 接하면서 관찰하는 方法, 知的인 言語를 통해서 관찰하는 方法이 곧 그것이다.

孔子가 師襄에게서 가야금을 배우고 襄弘에게 樂을 물어 보았다. 魯國의 樂師와 향

30) 《禮記》樂記(3), p. 406.

31) 張其鈞, 前揭書, p. 305.

32) 高明, 論語中的樂教, 「孔孟月刊」第53卷 第3期, p. 21. (民國 53年 11月)

33) 張其鈞, 前揭書, p. 129.

상 왕래가 있어서 自然히 音樂問題를 討論할 수가 있었다. 《論語》에 『孔子가 魯國의 樂隊長에게 「音樂이란 알법도 하지, 처음 가락은 가지런히 뽑고, 가락이 추려지면서 하나로 뚜렷한 것이 줄줄이 잇달아 한 音節을 만드니……」』(八佾)라고 하였다. 이는 交響樂의 過程을 아주 명백히 說明한 것이다. 演奏를 처음할 때는 五音六律이 우선 잘 調和되어야 하며 演奏하기 시작하면 처음엔 韻律이 純和되고 다음은 曲이 분명해야 하고 최후로는 음성이 奔湊해서 高潮에 달한 후 終曲에 이른다. 曲을 짓는 사람은 이 原則을 파악한다면 다른 曲을 創作하는 데 어렵지 않다. 이 原則은 약간의 樂曲을 감상한 후 綜合적으로 얻은 結論이다. 이로부터 더욱 우리는 孔子가 音樂鑑賞教育에 대한 能力이 대단함을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³⁴⁾

《論語》에는 孔子가 『師擊(악사장)가 읊던 첫 曲의 끝장이 아직도 내 귀에 쟁쟁하구나!』(泰伯)라고 하였다. 좋은 樂章은 반드시 훌륭한 樂師가 있어야 하며 師擊같은 사람이 演奏하여야 비로소 귀에 쟁쟁하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樂章도 모두 망쳐버린다. 孔子는 이점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다.

司徒란, 百姓을 다스리는 官職으로 百姓을 教育하는 責任을 겸했다. 司徒 밑에 〈師〉, 〈保〉란 官職을 두었는데 〈師〉는 德을, 〈保〉는 藝에 치중하여 教育하였으니 모두 學官이다. 學官이 있는 곳에 學校가 있었으며, 教材는 詩, 書, 禮, 樂이었다. 도포를 입은 이들 教師들이 한 집단을 이루었으니 社會的으로 이들을 〈儒〉라 불렀다.

라. 音樂教育의 教材

孔子講學的 第四要領은 〈游於藝〉다. 藝는 古代에는 教育上的 教材이다. 이른바 六藝 즉, 禮, 樂, 射, 御, 書, 數가 그것인데 禮를 으뜸으로 삼고 禮로 대표를 삼는다.³⁵⁾ 禮의 內容은 작게는 生活習慣에서 부터 크게는 사회풍속, 정치제도에 이르는 것이니, 오늘의 안목에서 본다면 文化의 대명사라고 할 수도 있겠다.(游於藝)의 游자는 폭 젓어 든다는 뜻이 있는데, 道德과 仁은 모두 哲學의 問題이지만 藝는 教育에 속하는 問題로서 각종 教材가 된다. 禮는 文化요, 樂은 音樂이요, 射, 御는 體育이며 書는 文學이요, 數는 科學으로 이들이 孔門教育의 全 內容을 구성한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仁을 체득해야 비로소 藝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 仁은 教育의 理想이다. 理想이 없으면 그것은 정신없는 教育이 되어서 教材도 모두 쓸데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부지런히 실습하고 무르익게 배운 뒤에 실재에 나아가 쓰면 마음대로 손이 응해서 모든 教材가 모두 實用價値를 갖는다는 것이다. 孔子는 晩年에 책을 쓰고 學을 講義하면서 詩書를 刪하고, 禮樂을 訂하며, 易을 보완하고, 春秋를 著述했다. 書는 古代의 史學이요, 詩는 古代의 文學이며 禮는 古代의 文化集約이다. 또한 易은 天과 人間관계를 궁구하고 調和의

34) 高明, 前掲書, p. 33.

35) 白基豐, 西洋音樂史, (서울: 現代樂譜出版社, 1979), p. 7. 참조

根源을 구명하여 새 生命을 개발하고 새 時代를 創造하는 것이다.

孔子는 中國古代文化를 六部の 經典으로 整理하여서 大家의 教材로 만들었다. 곧 易, 詩, 書, 禮, 樂, 春秋이다. 이 六藝 가운데 더욱이 詩, 書, 禮, 樂은 孔子의 늘상 講하는 바요, 弟子들의 信條이기도 하였다.³⁶⁾ 당시의 教育에 있어서 六藝의 文, 곧 詩, 書, 禮, 樂, 易, 春秋로 教材를 삼았던 것이나, 다만 孔子 스스로 말 한바를 따르다면 더욱 詩書禮樂을 重視하였음을 알았다. 《論語》에 이르기를 孔子께서 말씀하시되 「詩에서 일어나 禮에 서서 樂에서 이룬다.」- (子曰：興於詩立於禮，成於樂：泰伯) 하였으니, 사람이 몸을 닦아 稟德을 養成함에 있어, 禮로써 사람의 行爲를 樹立하며, 樂으로써 사람의 德性を 完成시키고, 詩로써 사람의 情과 志를 興起시키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連結지어져 本末이 一貫하여 이로써 完全한 人格을 이뤘내는 것이라 人文教育의 刻心이요, 示範을 이루는 것이다. 禮와 樂의 두 科目은 實習에 重點을 두고 誦詩를 重視하는 것이 아니다.

儒學의 教材《六經》은 禮, 樂, 詩, 書, 易, 春秋이다. 오직 《樂經》만이 漢나라 이래 單行本으로 있었던 것을 發見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樂經》은 秦火때에 없어진 것이라고도 한다. 周公에서 孔子에 이르기까지 거의 五百年間이 3大類의 詩와 樂이 많이 누적되어, 太史公의 《史記》에 의하면 거의 3千篇에 달한다고 한다. 어떤 이는 또한 《樂經》이 없을 수 없으니, 詩 三百篇이 모두 樂章들이고 바로 이 樂章들이 《樂經》이다 라고도 말한다. 儒家가 教育을 論할 적에 태반이 禮樂을 좇아 시작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禮와 樂은 더욱 基本科目이 되었다. 古書에 樂이라고 말한 것은 周禮보다 더 상세히 說明한 책은 결코 없다. 漢人들은 周禮 春官 大宗伯의 大司樂章으로써 樂人의 專書를 삼았으니,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樂經」이라 하여 보게 되었고, 대개 古樂은 이미 없어졌으니, 周禮에 서술된 바로 오히려 그 大要를 미루어 볼 수 있다. 周官 大宗伯의 大司樂章이 樂經이 되었고, 《禮記》의 「樂記」는 樂記가 된 것은 마치 儀禮가 禮經이 되고 禮記는 그대로 禮記가 된 것과 같다. 그래서 樂經과 樂記의 관계는 禮經에 禮記가 있는 관계와 같다.

孔子가 詩를 冊한 것은 마치 오늘날 教材를 정리하고 教本으로 편찬하여 學校에서 學生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또한 孔子의 위대한 공헌은 言語와 樂曲을 統一한 데 있다. 《詩經》은 中國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價値있는 文學叢書이다. 孔子가 《詩經》에서 각지의 民歌나 朝廷의 樂章을 들은하고 가려내어 國語로서 이를 弟子들에게 가르쳤다. 이것이 中國의 歷史上 전국적으로 通用되었고 영향력도 아주 컸던 教科書가 되었다. 이는 後代에 國民성의 陶冶와 民族정신의 鼓舞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말할 必要가 없겠다.

36) 張其昀, 前揭書, p. 31.

2. 禮樂論

禮樂이란 孔子가 德을 닦고 사람을 가르치는 方法이다. 《論語》에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禮는 해서 무엇하랴,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樂은 해서 무엇하랴,』(八佾)고 하였다. 어질다(仁)함은 곧 사람의 本性이며, 中庸은 사람이 되는 길(道)이다. 사람이 되는 길은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性情을 바르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禮樂의 根本이다. 禮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또한 極히 重要的 學問의 대상이다. 禮란 크게는 한 王朝, 한 時代의 法律, 制度이며 작게는 一家族 一氏族의 美風良俗에 해당한다. 이것은 時代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얻어진 人文進化的 軌跡이다. 대개 禮의 起源은 神을 祭祀지내는 일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점차로 擴張되어, 人間 相對로 되고, 또 이것은 人文進化的 必然의 추세여서, 한 사람의 힘으로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 사람의 힘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³⁷⁾

孔子는 春秋 末期에 對하여 禮制를 強調하고 있는 바, 다음 두가지 점에서 그의 공로를 發見할 수 있다.

첫째: 禮의 形式 中에 새로운 精神을 불어 넣는 일,

둘째: “庶人에게 내려가지는 않는다.”(禮記 曲禮上)라는 것을 庶人에게까지 끌어내려 온 일이요, 적어도 精神의 面에서는 그러하였던 것이다.

孔子는 오로지 鐘鼓, 玉帛 따위의 禮樂의 外形 만을 重視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면 禮가 무엇할 것이며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면 樂은 무엇 할 것이냐”(人而不仁如禮何, 人而不仁知樂何)³⁸⁾ 라고 한 것은 仁道의 새로운 精神을 낳은 形式 속에 불어 넣은 것으로 보여진다. “선배들의 禮樂은 소박하였으나 후배들의 禮樂은 화려하다. 만일 내가 하나를 擇한다면 선배들의 것을 擇하겠다.”(先進於禮樂, 野人也, 後進以禮樂, 君子也, 如用之, 則吾從先進)³⁹⁾ 라든지 모두가 그의 進步의 精神을 나타내고 있다.

禮란 질서의 뜻이다. 그러므로 이 말의 폭은 자못 넓어서 政治와 社會制度, 그리고 복잡한 人間關係를 망라한다. 禮를 배움으로써 社會속의 한 개인으로 人間의 存在가 확립된다고 본 것이다.⁴⁰⁾ 禮는 사람이 지켜야 할 社會의 행위의 規範이다. 말을 重視하는 것이 아니라, 實踐을 重視하기 때문에 “禮로써 節制한다.”고 하였다. 〈樂〉은 〈節〉과 〈文〉의 作用이다. 그래서 “禮樂으로 表現하고 禮樂으로 節制한다.”고 했다. (禮)를 거론하면서 역시(樂)에 이르게 된다.⁴¹⁾ 樂은 和를 주로하고 禮는 敬을 주로한다. 樂은 情

37) 韓國孔子學會, 前掲書, p. 103.

38) 八佾, 3.

39) 論語, 第六卷 先進篇 p. 190.

40) 世界思想大全集(2) 〈孔子・孟子〉「論語」 p. 158.

41) 張其昀, 前掲書, p. 600.

을 바꾸어질 수 없는 것이고, 禮는 理의 변할 수 없는 것이니, 情에 합하여진 뒤에야 理에 도달할 것으로 完全한 人格과 理想的 社會는 반드시 모름지기 禮樂의 가르침이 겸비되어야만 한다.

禮는 統治의 根本인데 德은 또 禮의 根本이다. 品格이란 바른것 즉, 標準, 規格과 같다. 儒家의 최고 理想은 사람마다 道德을 重視하고 禮儀와 양보를 崇尚하며 道理를 지키는 것으로 根本的 紛爭을 抹殺하여 訴訟이 없어지게 한다.

孔子는 君子란 一舉一動이 禮를 지켜야 하고, 또 禮의 拘束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禮와 樂은 잠깐이라도 몸에서 떠나서는 안된다.』(《禮記》「樂記」)고 말한 것이다. 만약 禮의 범위를 벗어나 제멋대로 행동하면 마땅히 刑이라는 제재를 받아야 하므로 『禮를 벗어나면 곧 刑으로 들어간다』고 말하였다.⁴²⁾ 《禮記》「樂記」에 孔子는 이같이 引用하여 말하였다. 『임금이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림에 있어서 禮보다 더 좋은게 없고, 風俗을 옮겨 바꿈에 있어서 樂보다 더 좋은게 없다.』『禮節은 백성의 마음이요, 樂和는, 백성의 소리이다. 그러므로 禮樂으로써 政治를 행하고 刑罰으로써 백성의 나쁜짓을 방지 시킨다. 禮, 樂, 刑, 政 이 네 가지에 통달하면 거슬림이 없게 된다. 이것이 곧 王道가 갖추어짐이다.』 과거에 中國은 禮樂之邦으로 호칭했으니, 制禮作樂은 中國文化의 中心思想이다.

가. 音樂의 本質

音樂이 생기게 된 動機는 사람이 外部로 부터의 느낌을 받고 동요되어 나오는 소리들 착안하여 아름답게 꾸민데서 비롯되었다. 소리에는 원래 清, 濁, 緩, 急, 高, 下의 구별이 있고, 이런 소리에 相應하여 변화가 생긴다. 이같은 과정에서 曲調가 나타나며, 이것을 음이라고 한다. 音을 調和시켜 樂器에 施行하고, 이것에 맞추어 춤을 추기도 하니 이것이 곧 樂이다. 그래서 무릇 音樂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임에 따라 생기는 것이라 하였다.

《禮記》, 「樂記」에 『音樂의 시조는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다.』⁴³⁾ 라고 하였으며 『先王이 音樂을 제정함에 있어 百姓이 情을 느끼고 감동하는 音에 의거하여 五聲 十二律을 상고하고 清濁, 高下, 尊卑, 降殺의 節을 제정했는데……』⁴⁴⁾ 라고 기록하였다. 禮樂을 제정하여 民心을 인도해서 邪淫에 흐름을 방지 하였다. 和易雅正한 音樂이 定해진 후에 音樂의 學官과 科程을 세워 그 學者가 익히는 節奏를 늘이고 그 音曲을 성찰하여 서로 應和시키고, 백성의 德을 세워 사특한데 흐르지 않게한다 하였으니 民心을 인도하는 先王의 뜻이 깊다고 하였다.

42) 張其鈞, 上揭書, p. 193.

43) 《禮記》, 樂記, p. 13.

44) 《禮記》, 樂記, p. 19.

(1) 음이란

무릇 음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감정이 마음 속에서 움직이는 까닭에 소리에 나타나게 되고 소리가 曲調를 이루는 것을 음이라 한다. 이런 까닭으로 治世의 음은 편안하고도 즐겁다. 이는 그 政治가 和平한 때문이다. 亂世의 음은 원망하여 분노에 차 있다. 그 政治가 道理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聲音의 길은 政治와 통하는 것이다. 음을 크게 나누어서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데, 宮, 商, 角, 徵, 羽가 그것이다. 이것을 政治에 비유한다면 宮은 임금의 되고, 商은 신하가 되고, 角은 인민이 되고, 徵은 일이 되고, 羽는 물건이 된다. 이 다섯가지 음이 어지럽지 않은 때에는 무너지거나 깨어지는 소리가 없다.

○ 宮음이 어지러우면 樂의 소리가 거칠어서 흠어진다. 이는 그 임금이 교만한 때문이다.

○ 商음이 어지러우면 소리가 기울어진다. 그 신하가 道理를 지키지 않는 때문이다.

○ 角음이 어지러우면 소리가 근심스럽다. 그 인민이 원망하기 때문이다.

○ 徵음이 어지러우면 소리가 슬프다. 그 일이 힘드는 때문이다.

○ 羽음이 어지러우면 소리가 위태롭다. 그 財貨가 궁핍한 때문이다.

이렇듯 다섯 가지가 모두 어지러울 때는 서로 다투며 학대하는 데 이를 慢이라고 한다. 이와같이 된다면 나라의 멸망이 머칠 남지 않은 것이다. 鄭나라와 衛나라의 음은 亂世의 음이다. 慢에 가깝다. 桑間濮上의 음은 亡國의 음이다. 그 政治가 흠어지고, 그 人民이 流離한다. 윗사람을 속이고 사악을 행하여도 금지시키지 못하는 것이다.⁴⁵⁾ 이것은 政治의 옳고 그름도 音樂에 관계된다는 것을 시사했으며, 五音의 관계를 論하여 政治에 비유하였다.

(2) 樂이란

樂이란 음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 根本은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感動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슬프게 느껴질 때에는 그 소리가 타는 듯하면서도 낮고 힘이 없다. 즐겁게 느껴질 때에는 명랑하면서도 여유가 있다. 기쁘게 느껴질 때에는 그 소리가 높아져서 흠어진다. 분노로 느껴질 때에는 그 소리가 거칠고도 사납다. 공경하는 마음이 表現될 때는 그 소리가 진지하면서도 分別이 있다. 사랑이 느껴질 때는 소리가 和平하면서도 유순하다. 이 여섯 가지는 性稟이 아니고 事物로 부터 느낀 후에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先王은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했다. 그러므로 禮를 가지고 그 뜻을 이끌고 樂을 가지고 그 소리를 和平하게 하고,

45) 《禮記》, 樂記, p. 16

政治를 가지고 그 行動을 한결같이 했으며 형벌로써 그 姦邪함을 막았다. 이렇듯 禮, 樂, 刑, 政의 네 가지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이 이르는 極點은 하나이다. 즉 人民의 마음을 統一하며 治國平天下의 道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⁴⁶⁾

樂은 음에 의해 생겨나 그 根本은 사람의 마음에 있으므로 事物로 부터 느껴지는 마음의 喜, 怒, 哀, 樂에 따라 感動의 소리와 폭이 달라진다. 이것은 本性이 아니고 情이라 할 수 있다. 일찌기 先王은 이런 것을 깨닫고 民心을 感動시켜 啓導의 方法을 신중히 하여 이로 하여금 中正에 이르도록 했던 것이다. 슬픔의 소리, 기쁨의 소리, 노여움의 소리 등 人間의 感情에 따라 그 소리가 다르게 表現되나, 이것은 곧 전달되어 相對의 마음을 움직이니 樂이란 역시 重要的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3) 音樂이란

무릇 音樂이란 즐기는 것이다. 즐기는 것은 人情上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즐거워 할 때는 반드시 聲音을 發하여 노래가 되고, 動靜으로 나타나 춤이 된다. 이것이 사람의 길인 것이다. 이 聲音과 動靜으로 表現되는 性情이 事物에 感動하여 발동한 것이 변화한 것으로서 그 변화는 실로 이 歌舞 두 가지가 全部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즐기지 않을 수 없는데, 즐거워 할 때는 聲音, 動靜으로 나타난 것을 바른 方向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어지러워져 음란으로 흐르지 않을 수 없다. 先王이 그 어지러워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에 雅頌의 소리를 만들어 이를 바르게 인도했다. 그 소리로 하여금 즐거워 하기에 족하되 방탕으로 흐르지 않게 했으며 그 音樂은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즐기게 그 뜻을 論하여 善한 方向으로 인도함을 중단하는 일이 없다.

그 聲調는 曲折하고 혹은 길고 곧으며, 혹은 떠들썩 하고 혹은 담백하며, 혹은 가늘고 날카롭고 혹은 굵고 유연하며, 혹은 멈추고, 혹은 進行하게 하는데, 사람의 착한 마음을 제발하기에 족할 뿐, 방탕한 마음과 사악한 기운이 범절함을 얻지 못하게 했다. 이것이 곧 音樂을 설정하는 方向이다.⁴⁷⁾

音樂이 일어난 까닭을 論하고 先王이 音樂을 제정한 방도에 대하여 언급했으며, 바로고 우아한 音樂을 제정하고 바른 方向으로 인도하여 즐기게 했다는 것이다.

(4) 正樂의 제정

사람의 맑고도 밝은 노래 소리는 하늘을 본뜬 것이고 鐘, 鼓 등 장대한 音樂은 땅을 본뜬 것이다. 五音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은 四時를 본뜬 것이고, 춤추는 자가 빙글 빙글 도는 것은 비바람의 변화를 본뜬 것이다. 그러므로 五音이 文理를 이루어 난잡하지

46) 《禮記》, 樂記, p. 14.

47) 《禮記》樂記, p. 74.

않고, 八音が 聲律에 따라 간사하지 않고, 모든 절조는 도수가 적당하여 一定함이 있다. 大小의音が 서로 이루어지고 처음과 끝이 서로 生하며, 唱聲과 和聲, 淸聲과 濁聲이 서로 어울려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音樂이 行해져서 마음이 맑아지고,耳目이 聰明해지고, 血氣가 和平해지며 風俗을 순화하여 天下가 모두 편안하게 된다.⁴⁸⁾ 君子가 天地를 본떠서 正樂을 제정했고 그것이 行해진 결과이다.

音樂의 八音은 八風에 의한다. 八風은 八方의 바람을 뜻하는데 동쪽을 明庶風, 동남쪽을 清明風, 남쪽을 景風, 서남쪽을 涼風, 서쪽을 閭闔風, 서북쪽을 不周風, 북쪽을 廣莫風, 동북쪽을 條風이라고 하였다. 즉, 竹音은 동쪽에, 木音은 동남쪽에, 絲音은 남쪽에, 土音은 서남쪽에 金音은 서쪽에, 石音은 서북쪽에, 革音은 북쪽에, 匏音은 동북쪽에 속한다고 한다. 正樂의 五音은 宮에서 시작하여 羽에서 끝나고 十二律은 黃鍾에서 시작하여 中呂에서 끝나지만 서로 生하거나 脩하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西洋音樂에서는 和聲이란音과音과의 융화에 불과 하지만 中國의 和聲이란 그 精神이 아주 심각하다. 《禮記》에 『大樂은 天地와 同和된다.』고 하며, 八音が 모두 연주되며, 모든 宗教와 도덕 관념이 위대한 和諧法則으로서 基礎를 삼아 그것에 統治된다. 禮는 人間의 外表를 다스리고 樂은 人間의 內面을 다스린다. 中國은 音律學이 제일 일찍 發達된 나라이다.⁴⁹⁾

周代에 五音, 七音, 六律, 六呂가 있었다. 그리고 陽은 律이 되고 陰은 呂가 되는 데 이것을 十二律이라 하여, 이 十二律管은 모든 中國 音階의 基本이다. 管의 길이가 다른 것을 가지고 각音의 높이를 정하는 이 方法은 아주 독특하며 그 숫자가 音樂에 대한 영향을 크게 보여주고 있다.⁵⁰⁾

(5) 音樂의 表現

노래하는 것은 올라갈 때는 마치 하늘에 오르는 것처럼 輕淸하고 또한 빠르며, 가락이 내려갈 때는 땅 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重濁하며 느리고 늦으며, 구부러질 때는 굴절하는 것처럼 구불구불하면서도 유연하게 밋을 때에는 마른나무 같고 그 굴절의 작은 것은 곡척의 각처럼 몹시 급하고, 그 굴절의 큰 것은 갈구리의 구부러짐 처럼 그 정도가 완만하여 그 소리가 길게 계속되면서도 바른 것은 마치 껌어놓은 구슬과 같다. 대저 노래라는 것은 길게 말하는 것이다. 무엇으로써 소리를 길게 하여 말하느냐. 事物에 감촉하여 기뻐하게 되면 입으로 말하며, 말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길게 말 하게 된다. 이것이 노래의 시작이다.⁵¹⁾

孔子는 魯國악단의 樂長과 音樂에 대하여 이같이 論하였다. “音樂의 구성은 대개 알겠습니다. 최초로 鐘이 크게 울리면, 다음을 이어 瑟奏가 은은하게 흐르고, 다시 管絃

48) 《禮記》樂記, p. 44.

49) 李惠求, 韓國音樂研究 (서울:韓國音樂研究會, 1957), P. 6.

50) 張其昀, 前揭書, p. 312.

51) 《禮記》『樂記』, p. 80.

의 각 파트가 따로 따로 명확하게 멜로디를 演奏하고 마지막으로 여운이 嫋嫋(노노)하여 완결하는 것이로군요”⁵²⁾ 그러므로 雅와 頌의 소리를 들으면 뜻이 넓어짐을 얻는다. 그 干과 戚을 잡고 그 俯仰屈伸하는 동작을 익히면 용모가 장엄함을 얻게 된다. 또 춤추는 자가 그 무도장의 한가운데 모여 그 장내를 춤추며 돌 때, 音樂을 演奏하여 순하게 하면 행렬이 바르고, 진퇴를 가지런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天地의 大敎이고 中和의 原理이며 인정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노래의 정묘함을, 그리고 노래는 원래 자기의 德을 선양하는 것이지만 音調가 諧和하지 않으면 그런 效果를 얻기 어렵다고 하였다. 音의 高, 低, 強, 弱에 따라 느끼는 사람의 感情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效果, 또한 노래 소리의 妙를 알아도 그 意義를 모르면 안되고, 노래의 시작은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 소리를 길게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며 音調나 무도의 原因도 表現의 부족으로 부터 발생된 것이다.

(6) 音樂의 鑑賞

音樂을 듣고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音樂 속에 잠길 수 있는 가장 옳은 출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또한 音樂의 生産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動機가 되는 것으로서 音樂의 創造와 鑑賞과의 접촉을 意味하는 것이 된다.⁵³⁾ 孔子는 音樂에 대한 鑑賞은 물론 演奏에 관한 知識과 조예도 상당히 깊었던 듯하다. 孔子는 어느날 魯나라 樂官에 대하여 “禮를 읽으므로써 社會的 立場을 확립하고 音樂을 들음으로써 人間의 敎養을 完成한다.”⁵⁴⁾ 夔는 堯舞때 樂을 다루던 관리로서 詩歌와 樂律을 가르쳤다. 夔는 樂舞를 제작하여 諸侯들로 하여금 鑑賞하도록 하였고, 魯나라에서 樂을 鑑賞할 때 韶曲의 演奏를 듣고 다 볼 때까지 감탄하였다. 韶舞가 이렇게 깊이 감동시키고 영향이 큰 것은 그 어떠한 歌舞도 따르지 못한 것이다.⁵⁵⁾

孔子가 多藝하다는 것은 세상에 다 알려진 일로서 音樂에는 더욱 힘을 기울였고 취미도 농후했다 한다.《論語》에 孔子가 齊나라에서 韶의 曲을 듣고 석달 동안 고기 맛조차 잊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즐거움에 취하고 말았다.”(述而)고 하였다. 석달 동안 고기 맛을 잊었다는 것은 흥분해서 먹는 것도 잊었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孔子는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專心하여 音樂을 鑑賞하였다. 비록 古今의 대음악가가 音樂을 第二의 生命으로 생각하여 그만큼 깊이 빠져서 취했다는 것은 孔子의 이러한 행동에 불과하였다.

孔子가 韶武의 鑑賞에 대하여 그것의 形成的인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못함 뿐 아니라

52) 世界思想全集 (2) 前掲書, P. 88.

53) 尹良錫 共著, 前掲書, p. 20.

54) 世界思想全集(2), 前掲書, p. 158.

55) 張其鈞, 前掲書, p. 316.

그 내용의 지극히 훌륭함과 지극히 훌륭하지 못함도 판단하였으니 이는 音樂을 鑑賞하는 올바른 길이다. 孔子가 韶樂을 論하고 武樂의 高下를 이야기 하였는데 이는 그 藝術에 정통하지 못하고는 말할 수 없다. 孔子는 音樂에 대한 조예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훌륭한 鑑賞家이며 위대한 批評家이기도 하다.

나. 音樂과 詩・舞

中國古代의 禮樂에는 儀式과 音樂, 詩歌와 춤이 있다. 吉, 凶, 軍, 賓, 嘉 이 五禮에도 각각 그 儀式과 音樂, 또 詩歌와 舞蹈는 개인이 內心の 情感이나 社會生活의 天性을 表現하는 것이다. 군중에게는 단체의 의지를 단련하고 그 協力の 精神을 養成한다.

音樂과 詩, 舞는 옛부터 三位一體로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論語》에 『내가 衛나라에서 돌아온 후 音樂도 바르게 되고 아악도 제대로 터가 잡혔다.』(子罕)雅와 頌은 詩의 體裁이며 이를 樂이라 하였으니 예전엔 詩와 樂이 일체였음을 볼 수 있다. 詩는 樂의 언어가사이고 樂은 詩의 聲音節奏이다. 《論語》에 『樂은 韶舞曲이어야 한다.』(衛靈公) 옛 부터 樂과 舞 또한 一體인 것을 알 수 있다. 樂 또한 舞의 聲音節奏이고 舞는 樂의 動作을 形容하는 것이다. 이로써 樂, 詩, 舞가 三位一體가 되어 樂을 바로 잡았으니 詩, 舞에 대해서도 自然히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詩는 뜻을 말한 것이고 노래는 말이 긴 것이며, 소리는 가락에 따르고 音律은 소리가 調和된 것이다. 즉 樂은 詩를 根本으로 삼고 詩는 사람 內心の 情志가 된다. 이 情志가 있으면 詩가 있고, 詩가 있으면 노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詩와 樂은 또 반드시 體와 調和되어 實行되어야 한다.⁵⁶⁾ 《禮記》樂記에 『詩는 그 뜻(志)을 말하고 노래(歌)는 그 소리를 읊은 것이며, 舞는 그 모습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 셋이 모두 마음에 根本을 둔 후에 樂器가 그 뒤에 따른다.』고 했다. 옛날 舜임금은 五絃의 거문고를 만들어서 南風의 詩를 노래했다. 그 典樂의 官인 夔는 南風의 樂을 제정하여 이로써 제후 중의 공덕있는 자를 상 주었으며 이 曲을 演奏하여 춤을 추게 했다.⁵⁷⁾

또한 《禮記》의 樂記篇에 이같이 論하였다. 『때문에 그것을 노래로 해서 말한 것이 길게한 말이다. 기뻐서 말하고 그 말이 부족하니 길게 말하고 긴 말이 부족하여 그것을 감탄하고, 감탄이 부족하여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고 발을 굴렀다』(子貢問樂, 師乙答語)라고 하였다. 詩는 그 뜻을 말하고 노래는 그 소리를 읊으며 춤은 그 모습을 움직인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곧 종소리, 북소리, 피리소리, 경쇠소리가 있고, 땀, 구부리고 굽어 보았다 쳐다보는 춤이 있게 된다. 노래는 그 가사를 읊어서 소리로서 퍼지게 하고, 춤은 그 모습을 움직여 曲으로써 이를 따른다. 서로 어울려서 情緒를 펴는 밀천으로 삼았다. 詩, 樂, 舞는 원래 일관된 것이며 하나라도 적어도 안되고

56) 李泰極, 時調概論(서문: 새글社, 1974), p. 44.

57) 《禮記》樂記, p. 34.

나뉘어져도 안된다.⁵⁸⁾

(1) 音樂과 詩

孔子的 音樂과 詩를 中心으로 한 樂藝의 精神은 孔子思想에 있어서 詩의 精神을 강조하고 소중하게 여긴 곳은 한 두 군데가 아니다. 그러나 樂의 精神과 연결하여 보면 몇 가지 예를 볼 수 있는데, 詩와 禮와 音樂의 관계를 한꺼번에 이야기하여 樂의 단계적인 完成을 말한 곳이 있다. “詩로써 感興을 일깨우고, 禮로써 행동을 바로잡으며, 音樂으로써 人格을 完成한다.”⁵⁹⁾ 詩에서 즐거움이 시작하여, 禮로써 그것을 節制하고 音樂으로써 그 즐거움이 極致에 달한다는 것이니, 興於詩는 거짓없는 참된 경지로 眞이 깃들어 있는 곳이며, 成於樂은 調和의 極致이니 美가 깃들어 있다고 한다.⁶⁰⁾ 결국 孔子의 樂의 精神이 藝術精神속에 그윽하게 들어 있다는 內容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로 孔子는 門人들을 향해서 詩를 배우지 않느냐고 안타깝게 독촉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어찌 詩를 배우지 않느냐? 詩는 感興을 이르키며, 人情을 관찰케 하며, 사람과 어울리게 하며 非情을 원망할 줄 알게 한다.”⁶¹⁾ 詩를 배우으로써 人間의 感興을 일으켜 준다는 것이니, 즐거움의 정신이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意味이다. 따라서 喜怒哀樂의 온갖 情緒를 헤아릴 수 있게 되고, 즐거움의 정신이 개인적인 것을 초월하여 사람들 속에서 共感帶를 形成하고, 더 나아가서 전체 社會人의 기쁨으로 되어가는 것도, 詩를 배우으로써 可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詩는 그 자체 完成의 단계를 바랄 수 없고, 音樂을 기다려 마침내 理想的인 樂의 完成 단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⁶²⁾

옛날에는 詩와 樂이 합해져 하나로 되어 있었다. 三百篇의 詩가 모두 弦歌가 되니 그 性情과 音樂이 모두 하나였었다. 樂에는 歌가 있었고 歌에는 辭가 있었으며, 鄉樂의 歌는 風이라 하고, 그 詩는 나라 안의 男女가 그 情을 사모하는 辭이며, 人間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樂이다.⁶³⁾ 원래 詩와 樂의 연관성은 깊은 것이어서, 孔子는 특별히 音樂을 重視하였다. 그 자신이 기꺼이 거문고를 타고, 기꺼이 비파를 타며, 기꺼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남과 더불어 노래 부르다 좋으면, 반드시 이것을 반복하게 한 뒤에 이에 맞추어 노래 불렀다.”(興仁歌而善, 必使反之, 而後和之)⁶⁴⁾ 라고 하는데, 이로 미루어 그가 노래 공부에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를 알 수 있다.⁶⁵⁾

《詩經》에 수록된 三百여편의 詩歌는 물론 표현된 內容이나 形式으로 말하자면 모두

58) 張其昀, 前揭書, p. 313.

59) 蔡伯, 8.

60) 李乙浩, 한글論語(서울: 博英文庫, 1977), p. 86.

61) 《論語》陽貨, 9.

62) 韓國孔子學會, 前揭書, p. 252.

63) 張其昀, 前揭書, p. 297.

64) 述而, 31.

65) 韓國孔子學會, 前揭書, p. 101.

完美的 예술품이다. 원래 그 詩歌들은 전부 音樂의 樂章에 부합되는 것이다. 古代의 音樂은 詩歌와 함께 配合되어 調和되었던 것이 後에 와서 音樂과 詩歌가 분리되었다.⁶⁶⁾ 詩와 音樂은 밀접하여 不可分の 관계에 있기 때문에 中國의 詩는 形式중에서 音樂性を 重要視한다. 《詩經》以後, 漢代 이후의 〈樂府詩〉는 모두 樂과 합치될 수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樂과 합치 되지 않았던 古詩도 입안에서 自然스럽게 調和되고 音韻이 자연스러운 것은 역시 音樂性を 重視한 것이다.⁶⁷⁾

옛날에 太師가 詩를 읊을 때 “詩를 읽는 것은 또 다른 法이 있으니 이는 먼저 마음을 비어 놓아야 한다. 그런 뒤에 위 아래를 읊으면 노랫소리가 조용하여 사람들을 感動시켜 비로소 功이 있는 것이다.⁶⁸⁾” 中國詩는 聲律을 강조하기 때문에 音樂성이 아주 농후하다. 그래서 그 形式은 世界 여러나라의 詩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교묘하다. 孔子는 《詩經》을 特別히 重要視하고 있는 바, 생각컨대 그것은 그가 使用한 極히 중요한 教材였기 때문이다. “詩를 배워서 感憤興起하고, 禮를 배워서 立身하고, 樂을 배워서 人格을 完成한다.”(興於詩, 立於禮, 成於樂)⁶⁹⁾ “詩는 感興을 돋으게 하고, 事物을 보게 하며, 大衆과 더불어 어울리게 하고, 批政에 대하여 批判하게 하는 것이다.”(詩可以興, 可以觀, 可以羣, 可以怨)⁷⁰⁾ “詩를 배우지 아니하면 公의인 장소에서 말 할 수가 없다. 禮를 배우지 않으면 士大夫間에 나설 수가 없다.”(不學詩無以言, 不學禮無以立)⁷¹⁾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우리는 그가 特別히 詩의 가르침(그것은 즉 情操教育에 속한다.)을 重視하였음을 알 수 있다. 詩를 배우면 다만 知識을 넓힐 수가, 즉 “鳥獸草木의 이름을 많이 알 수가 있을 뿐만”(多識於鳥獸草木之名)⁷²⁾아니라, 또 政治는 물론이요, 外交官으로도 훌륭한 일을 해낼 수가 있다. 모두 이로 말미암아 좋은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아마 詩 속에 衆人들의 애환이 있고, 各國 風俗이 있으며, 歷史的 事實로서 배울만한 본보기가 있으며, 또 政治나 原理나 要諦가 깃들여 있다고 하는 理由 때문이다. 優美한 옛 詩는 우리를 위하여 많이 保存케 했다고 하는, 그 한 점 만으로도 孔子의 功績은 길이 추앙되어야 할 것이다.

(2) 音樂과 舞

中國의 古代에는 경사스러운 때나 제사지낼 때, 出戰할 때 손님을 맞거나 宴會할 때 춤이 있었으니 사람마다 춤을 출 수 있고 항상 춤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심지어는 靑春男女에게 교제할 수 있는 機會를 주는데도 一種의 무도회를 규정하고 있다.

66) 元吳澄「詩序錄」, 見「宋元學案」第4冊 p. 1098. 年85. (西元 1249—1333年)

67) 高明, 「中國의 詩」 見「中國文化論集」第2冊, p. 354.

68) 何基, 字稔, 金華人, 世稱北山先生, 見「宋元學案」卷75, 第4冊, p. 962.

69) 泰伯, 8.

70) 陽貨, 9.

71) 季氏, 13.

72) 陽貨, 9.

《周禮》地官媒氏에 『仲春에 男女를 모이게 하였다. 이 때에는 禮를 갖추지 않고 혼인하는 자는 금하지 않았으나 아무 이유 없이 命令을 어긴 사람은 벌을 준다.』 이러한 무도회는 지금 변강지방의 初民社會에만 남아 있다.(臺灣의 山地族)⁷³⁾

옛날의 教育內容은 音樂歌舞이다. 歌舞는 관현악기를 따라서 흥이 일어난다. 『琴瑟로써 표현하고(文)干戚으로 움직이고(動) 羽旄로써 장식하며 簫管으로 뒤따른다.』(史記, 樂書) 어떻게 하여 소리가 생겨나고, 색이 생겼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夔가 樂과 舞를 만들어 諸侯에게 상을 줄 때 하는 것을 大韶라 하였는데 이를 간단히 韶라고도 했다.韶의 뜻은 잇는다는 것(繼)이며 대개 舜이 堯의 德을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을 말한다. 顏淵이 물으니 孔子가 『樂은 韶舞여야 한다.』(衛靈公)고 하였다.

上古의 民族은 수렵에서 유목으로 발전되어서 그들이 썼던 것은 뼈, 뿔, 깃털, 가죽이었다. 고로 原始民族의 舞는 모두가 깃털로 장식되었다. 古文의 舞字는 羽亡에서 비롯되었다. 羽는 춤추는 사람이 지녔던 것이며 亡은 無와 通用되었다. 옛날의 춤은 깃털을 많이 지녔기 때문에 무용의 모습이 여러 種類가 되었다. 무용은 리듬에 맞아야 하며 리듬의 아름다움은 잘 정리됨이 필요하며 活力이 있어야 한다. 《莊子》의 天下篇에 『鐘과 북의 소리, 羽毛의 아름다움』이라 했다.⁷⁴⁾ 周公이 禮樂을 制作하고 樂舞로서 國子를 가르쳐서 체제를 크게 정비하였다. 周의 樂舞는 안색이 온화하고 신체가 잘 단련된 사람을 舞人으로 하였다. 북을 두드리며 춤을 추면 사람들을 感動시키기 때문에 教育的인 價値를 지니고 있다.

西周時代에는 舞蹈로서 青年의 心身은 陶冶하였고 비록 나이는 다르더라도 舞를 배우는 데는 先後가 있었으며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文舞나 武舞를 가르쳤다. 그 중 重要視했던 것으로는 群舞가 있었는데 이러한 단체무용에서 똑바르고 단결된 協同의 美德을 養成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⁵⁾ 舞蹈은 건강한 습관을 양성하며 체육과 音樂의 두가지 意義를 겸하고 있다. 舞와 樂은 실로 古代教育의 重要 學科이며, 學問과 藝術은 하나로 융합되었다.

다. 音樂과 道德

孔子가 進德修業하는 道理로 “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游於藝”⁷⁶⁾를 말하였지만 여기서 일컬어진 道, 德, 藝는 곧 眞, 善, 美를 대표하여 말하여진 것으로 理解될 수 있다. 또한 人間生活에 있어 주위환경을 重視해야 한다는 意味에서 “里人爲美, 擇不處仁, 焉得知?”라 하였으니, 여기에서의 知, 仁, 美는 眞, 善, 美를 뜻하면서 동시에 三者를 —

73) 王靜之, 「孔子與六經中之樂」, 見「孔孟子學報」第21期, pp. 9-10, (民國60年)

74) 劉百閔, 「經學通論」, pp. 289-209.

75) 張其昀, 前揭書, p. 298.

76) 《論語》述而篇.

氣로 渾融시키고 있으니 꼭 우연의 一致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孔子의 生活이나 精神은 「和」에 입각하여 藝術的 調和의 경지로 昇化시키는 것을 意識化한 듯하다.

《禮記》樂記에 『音樂의 正邪는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기 때문에 君子는 바른 感情으로 돌아가서 그 뜻을 和하게 하고, 類를 비교해서 그 행실을 이룩한다. …… 이렇듯 귀, 눈, 입, 코, 마음과 몸으로 하여금 모두 順正에 따라서 그 道理를 행하고 德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德을 발휘하는데 있어 聲音으로써 하고 이를 문식하는데 있어 琴瑟로써 하고 干戚으로써 이를 움직이고 羽毛로써 장식하며 통소의 樂器로써 따르게 한다. 至德의 빛을 발하고 四時의 和氣를 움직여서 萬物의 이치를 나타낸다.』⁷⁷⁾ 『대체로 노래하는 것은 부르기 前에 自己 몸을 正直하게 하여 德을 修養하고, 그런 後에 자기 德에 맞는 노래를 노래하여 자기 德을 선양하는 것이다.』⁷⁸⁾ 『音樂의 教化가 행해지면 백성은 길을 指向해서 德을 볼 수 있다.』⁷⁹⁾ 『德이란 天性의 端緒이다. 音樂은 德의 莢華이다. 金石絲竹은 音樂의 器이다. 音樂은 詩와 노래와 춤의 세가지로 成立된다. 詩는 그 뜻을 文字로 나타낸 것이고, 노래는 그 소리를 가락으로 나타내어 읊는 것이고, 춤은 그 容姿를 움직이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마음의 德에 根本을 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孔子의 教育哲學은 오로지 〈仁〉으로 中心을 삼았으니, 孔子가 말씀한 仁은 거의 包括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孔子의 말씀에 〈仁〉은 곧 모든 德을 아울러 묶어 人格을 完成하는 것을 이룬 것이다.⁸⁰⁾

東洋音樂이 일반적으로 完全協和音만을 취하는 것과 東洋에 있어서의 音樂美學史上의 권위인 孔子가 半音階를 혐오한 理由는 백성을 教化함에 불건전한 音樂을 주는 것은 道德的 결함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古代 헬라의 비극 작가가 半音階 사용을 찬성하지 않는 것과, 中世紀 가톨릭 教會音樂이 部分的으로 이것의 사용을 회피하였던 것과 一致할 것이다.⁸¹⁾ 총괄적으로 말한다면 道德과 和平은 世界大同의 基礎다. 世界大同은 武力이나 金錢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다만 道德과 和平만이 世界大同의 반석이 되는 것이다. 『하늘이 孔子를 세상을 경각시키는 목탁으로 삼았다.』라는 말의 가장 큰 意味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⁸²⁾ 道는 宇宙와 人生의 基本原理가 된다. 原理原則에 의해 現實을 지도하고 힘써 행해서 현 실상의 여러 問題를 解決하는 것을 일러 德이라 하였다. 道는 길과 같고, 德은 길을 따라 행하는 것

77) 《禮記》樂記, p. 22.

78) 《禮記》樂記, p. 78.

79) 《禮記》樂記, p. 45.

80) 東方學研究所, 東方學志 第六輯, (延世大學校, 1963)p. 228.

81) 尹良錫, 共著, 前揭書, p. 96.

82) 張其昀, 前揭書, p. 21.

이다. 그래서 德行이라 한 것이며, 道는 사람마다 공유하는 것이나, 德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德을 得이라고도 한다. 《周易》에선 『天地의 大德을 생이라 한다.』고 하였다.

Ⅲ. 플라톤의 音樂教育思想

1. 音樂教育觀

가. 그리이스音樂教育의 基礎

그리이스 神話에 音樂은 神에게서 나왔으며, 이 音樂을 만들어 낸자는 아폴로(Apollo),⁸³⁾ 암피온(Amphion), 그리고 오르페우스(Orpheus)와 같은 神과 半神反人이었다. 이런 先史時代의 世界에서는 音樂이 마술과 같은 힘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즉 사람들은 音樂이 병을 고치고, 육체와 정신을 純化시키며, 自然界 안에서 奇蹟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音樂은 宗教儀式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으며 紀元前 4世紀 아리스토텔레스는 “젊은이들이 高尚한 선율과 리듬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音樂을 익히게 해 보라.”⁸⁴⁾라고 하였다. 그리이스의 音樂理論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⁸⁵⁾ 첫째, 音樂의 本質, 宇宙안에서의 音樂의 位置, 音樂의 效果, 그리고 人間社會에서의 音樂의 固有한 용도등에 대한 原則, 둘째로 作曲의 素材와 形態에 관한 체계적인 묘사, 音樂에 관한 哲學과 科學의 양면에서 볼 때, 그리이스 사람들은 훌륭한 洞察力으로 여러 原則들의 체계를 세웠다. 音樂에 대한 그리이스인의 생각은 피타고라스(Pythagoras, B.C 500頃)⁸⁶⁾時代에 그 基礎를 세웠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리이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音樂이란 말은 오늘날 보다 훨씬 넓은 意味에서 사용되었다. 眞理나 美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共通의인, 혹은 基本的인 그 어떤 것처럼 생각되었다. 피타고라스와 그 후계자들의 理論으로는 音樂과 數學은 不可分の 관계가 있었다. 數字를 理解하는 것이 모든 精神的이고 肉體的인 世界를 理解하는 열쇠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처럼 樂音(musical Sound)과 리듬의 체계는 數字에 의하여 整理되기 때문에 宇宙의 調和를 예증하고 거기에 相應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原則은 플라톤에 의하여 完全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說明되었다. 그리이스의 思想家들 중에는 音程의 체계와 天體의 체계의 基礎가 된다고 생각되었던 數學的인 法則의

83) 供田武嘉津, 世界音樂教育史(東京: 音樂之反社, 1958)pp. 34-35.

84) 아리스토텔레스의 (Politics) 第8卷6, 1341 a 10.

85) 金晉均, 音樂의 歷史와 思想(서울: 學文社, 1984)pp. 24-25.

86) 「音樂大事典」 編纂委員會, 音樂大事典(서울: 信進出版社, 1972) p. 1396.

同一性 뿐 아니라 어떤 旋法과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음과 여러가지 游星들과의 사이에 있는 특별한 대응관계로 인하여 音樂이 天文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런 理念은 “天體의 音樂”(music of the spheres)이란 아름다운 神 속에서 플라톤에 의해⁸⁷⁾ 詩的인 形式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이스 사람들은 旋律과 詩는 同義語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詩音樂”이 象徴的이 아니고 音程과 리듬이 정확하게 表現될 수 있는 실질적인 律理이었다. 音樂은 人間의 思想과 行動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볼 때, 音樂에는 말의 能力을 닮은 能力이 있다고 믿는 信念과 따라서 音樂에 있어서나 言語에 있어서나, 藝術家들은 남에게 대하는 그 영향력이 대단한 것이다.

音樂은 可視的, 그리고 不可視的인 모든 피조물에 작용하고 있는 數學的인 同一한 法則으로 인하여⁸⁸⁾ 규제되는 음과 리듬의 체계로 또한 하나의 小宇宙로 보았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音樂은 世界의 질서정연한 체계의 수동적인 像이 아니고 世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힘이기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音樂은 靈魂의 感情이나 狀態, 一평은함, 분노, 용기, 그리고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것들, 또는 다른 性格들을 직접적으로 모방한다고 하였다.』⁸⁹⁾ 그래서 어떤 感情을 모방하는 音樂을 들을 때, 그는 똑같은 感情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오랜 時間동안 미친한 感情을 격발시키는 그런 音樂을 습관적으로 들으면 그 사람의 모든 人格은 미친한 形態로 그 모습을 바꾸게 될 것이다. 요컨대 나쁜 종류의 音樂을 들으면 그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 될 것이고, 그와 반대로 올바른 音樂을 듣는다면 그는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할 것이다.⁹⁰⁾

따라서 그리이스에서는 音樂이 人間의 性格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音樂은 다른 方法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플라톤같은 그리이스의 古典 作家들은 音樂을 그들의 教育課程의 中心으로 삼을만큼 音樂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였다.⁹¹⁾ 이러한 생각은 現在 우리들이 갖고 있는 音樂에 대한 概念과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音樂이라는 용어를 우리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적어도 더 넓은 意味로 사용했던 것이다.⁹²⁾

나. 플라톤의 國家論과 音樂教育

「國家論」은 도시와 영혼 사이에 엄격한 대응관계가 存在한다는 可定에 基礎를 두고 있다. 그리하여 어린 시절부터 지배계급은 시민과 격리되고 特別한 教育을 받는다. 플라톤의 國家에서는 貴族만이 統治할 수 있었고 어릴때 부터 貴族은 엄한 訓練을 받아

87) 플라톤, Republic, X, p. 617.

88) 康俊彰, 西洋古典古代思想家和 思想史論(高麗大學校西洋古代史研究室), (서울: 法文社 1982)p. 354.

89) 아리스토텔레스, (Politics) 8. 1340 a.b. 플라톤(Law) II, 665, 668-670, 812 참조.

90) Platon (Republic) III, 401e 참조.

91) 淺香淳, 新打大音樂의 肖像と生涯(東京: 音樂之友社, 1977), pp. 23-24.

92) 崔赫洵, 永遠한 眞慧를 찾아서(서울: 經營文化院, 1977)p. 336.

야 하였다. 그들의 性格을 형성하는 영향 그들의 寓話, 노래, 춤은 검열을 받아야 하고 통제되어야 한다. 그들의 教育은 주로 세 가지로 확립시키는데 관계된다.

첫째: 富, 家族, 육체적 쾌락 등에 대한 욕망같은 개인 權利는 억제되어야 한다.

둘째: 그들은 육체적으로 건전해야 하며 따라서 飮食과 의복에 대한 스파르타인의 간소함으로 양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이 官吏임과 동시에 軍인이 되어야 하고 어릴 때부터 軍事訓練으로 단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그들에게 知的인 基礎訓練이 부과되어야 한다.⁹³⁾

宇宙論과 神學, 形而上學, 歷史哲學, 神話 등에서 발어온 民主政은 과두정치에서 발행하며 과두정은 다시 용기의 압도적인 우위를 특징으로 하거니와 音樂性이 부족한 戰士階級이 지배하는 金權政治로 부터 유래한다. 그리하여 쾌락을 억제하는 法을 배워야만 하는 가장 큰 法律은 自國의 백성들에게 音樂的인 즐거움을 전혀 내지 불충분하게 밖에 허용치 않는 크나 큰 결점을 지니고 있다.⁹⁴⁾ 다시 말하면 그들은 단지 合唱으로 노래하는 방식밖에 모른다는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가장 高尚한 音樂을 알지 못한다.⁹⁵⁾ 國家에서는 節制를 위한 音樂教育이 제시되며, 그러한 教育을 위하여 政治家나 立法家들은 音樂家와 詩人들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밝혀진다. 한편 國家論에서는 節制에 대한 教育이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있어서 教育의 本領은 德成에 대한 教育, 즉 시민의 德 혹은 人間의 德成에 대한 教育임에는 틀림없다.⁹⁶⁾

따라서 國家는 教育을 시행하는데, 人間의 德成은 原則的으로 쾌락과 고통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혹은 적절한 억제이다. 시민들은 일상적인 쾌락과 고통을 억제하는 法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옳하고 지혜로운 法律의 통제를 받아야 했고, 詩를 비롯한 모방적인 藝術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변혁에 대한 욕구는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했다.

플라톤은 쾌락을 人生의 目的이라 하지 않고 神的 完成을 至高善이라 하였다. 神은 完全한 公正이므로 公正한 사람이 가장 神에 가깝다. 그러므로 公正은 基本的 德이며, 모든 德의 어머니다. 플라톤의 理想國家는⁹⁷⁾ 兒童은 國家에 속하고 國家는 全兒童의 아버지로서 教育의 責任을 진다. 3歲까지는 영양만 주고 6歲까지는 神話を 들려주고, 10歲까지는 體育訓練, 13歲까지는 독서, 16歲까지는 詩와 音樂, 20歲까지는 軍事教練, 30歲까지는 모든 學問의 研究를 거듭하여 倫理學으로 教育의 절정을 삼아, 드디어 國

93) 康俊彰, 前掲書, p. 280<理想國家論Ⅱ>

94) 康俊彰, 前掲書, p. 14.<플라톤의 哲學 및 政治思想>

95) Laws, 643 c, 659~e: 653 a~b.

96) Laws, 666 e~667b.

97) 現代人講座編纂會, 學問과 藝術3.(서울: 博友社, 1962), pp. 202-204.

家の 重要な 地位에 나아가게 한다. 이렇게 國家의 職分은 主로 地上에 善과 義로 실현시키는 教育的인 것으로써 藝術은 이와같은 教育의 手段으로서만 存在가 認定된다는 것이다.⁹⁸⁾

2. 感 性 論

플라톤은 生成變化하는 經驗인 對象들로 구성된 것을 感性界라고 하였다. 感性界는 感性에 의해서 파악되는, 不確實한 領域이다. 그러나 때로는 對象의 明確性을 전해 주는데에 하나의 도움이 된다. 즉 「이데아」(Idea)와 비슷한 것을 보고 이를 통해 想起하기 때문이다. 音樂이 아폴론의인 꿈의 形想과 根源의 고통을 音樂에 반영하여 世界의 마음과 一體가 됨으로써 그에게 나타나는 形想은 可想이 갖는 根源의 쾌감과 함께 根源의 모순과 根源의 고통을 感性化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한 꿈의 장면에 지나지 않는다.⁹⁹⁾ 또한 可變的이고 可滅的인 육체에서 認識을 통하여 不滅的이고 不可視的인 「이데아」(原型)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¹⁰⁰⁾ 그런데 感性은 認識의 對象인 「이데아」의 보상인 影像의 對象을 보고 「이데아」를 想起하기 때문에 認識의 媒介體가 된다.¹⁰¹⁾ 可滅的인 世界에서 永遠한 世界로 참된 眞理를 소유하여 本來의 世界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本來의 永遠한 不死가 되기 위해서는 感性의 도움으로 「이데아」를 認識하며 「이데아」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기자신을 絶對的 存在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플라톤에 의하면 感性의 知覺의 對象이 있고 理性的 認識의 對象이 되는 것이 있다. 이 중에서 理性으로 認識하는 對象이 感性의 知覺의 對象에 관련되고 또한 支配하고 있다.

플라톤은 自我와 存在, 그리고 「이데아」의 意味를 認識한 후에 感覺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다.¹⁰²⁾ 즉 「이데아」보다 現象界를 感性하면, 그것의 복잡성, 변화성에 현혹되기 쉬우며, 眞理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不明確한 知識만을 갖게 된다. 플라톤은 經驗의 對象과 感覺의인 사이에서 서로의 관계를 말하기를, 感覺으로는 眞理를 알 수 없다고 보고 있다.¹⁰³⁾ 그러나 現象의 世界는 本來가 感覺의 對象이고 그 속에 어떤 永遠한 存在 要素가 없기 때문에 對象도 感覺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靈魂과 관계된 對象으로서 「이데아」를 제시하고 있다.

98) 韓雲菴, 西洋哲學史思想評(서울: 昌震社, 1976), p. 48.

99) 金基應, 大世界哲學的文學全集7.(서울: 白文堂, 1978), p. 223

100) 金相善, 文藝思潮論,(서울: 日新社, 1981)p. 74.

101) 崔東熙, 金永喆, 申一澈 哲學(서울: 日新社, 1974)p. 54.

102) 韓雲菴, 前揭書, pp. 42-44.

103) 崔東熙, 金永喆, 申一澈 尹絲淳, 哲學概論(高麗大學校 出版部, 1981) p. 82

가. 音樂과 靈魂의 感覺

感覺은 영혼의 一部分으로 영혼의 現象界를 보고서 참된 對象인 참 存在者「이데아」를 바라보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영혼은 可滅의인 육체를 支配하고 육체적인 것을 統制하므로 이 영혼 밑에 있는 感覺은 理性에 의해 支配되고, 自己의 位置를 지키고, 그 特性을 發揮할 때, 영혼을 살아 있게 하며 가장 온전한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플라톤은, 感覺은 신체의 조건에 따라 변화하며 一定한 性質을 갖지 못하고 一部分을 받아드리게 된다. 플라톤은 자기 자신과 存在와 「이데아」의 意味를 認識한 후에 경험적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現象界의 세계에서 感覺의 對象속에 있게 되며, 영혼과 관계된 感覺으로 「이데아」를 認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영혼은 신체에서 特殊한 物質에 그 자리를 점령하고 있으며, 이것을 「푸로이마」라고 이름하였는데 「푸로이마」는 주로 血液中에 있으니 따라서 영혼의 주되는 器官은 심장이다.¹⁰⁴⁾

感覺이란 時間과 空間에 의해서 분할되는 精神의 方式이다. 精神에서 있어서 「같다」라는 것은 統一과 恒常과 優越과의 原因이며, 「다르다」라는 것은 雜多와 變化에 不完全과의 原因이다. 이 兩者를 包含하고, 이것을 結合시키는 것이 精神이며 世界精神이다. 그러므로 世界精神은 「同」과 「他」와의 混合에 있어서 現實의인 存在를 成立시킨다.¹⁰⁵⁾

感覺에 속하는 신체와 感覺의 固有性으로 느끼는 音樂은 맥박이 空氣와 귀와 뇌와 혈액의 매개로 精神에 이르는 것으로 聽覺이란 이 맥박의 진동이 머리에서 시작하여 간장에서 끝나는 것이다. 신체의 感覺器官은 現象界의 對象에서 생기며, 이것은 精神에 發達되어 高級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聽覺에 있어서 感覺이 어떻게 作用하는지 대체로 보아 音聲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은 銳音이고, 서서히 움직이는 것은 純音이고, 정상으로 움직이는 것은 고르고 유창한 音이요, 그 反對는 거칠은 音이다. 音響이 큰 것은 高聲이라 하고 작은 것은 그 反對이다.¹⁰⁶⁾ 이렇듯 音樂은 聽覺을 통하여 精神에 到達하게 된다.

다른 모든 感覺들도 그것이 自然의 本性으로, 되도록 理性의 支配 아래서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音樂은 그 구성됨이 조물주가 世界를 創造할 때의 數의 比例와 같고, 또 그 高音과 低音의 調和에서, 우리는 「이데아」를 認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柔順함과 懶怠한 音樂은 영혼을 고귀하게 하지 못하므로 本來의 정립된 音樂形態로써 고귀한 영혼을 갖도록 해야 한다. 우리들은 生成消滅하는 것이지만 「이데아」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感覺을 통하여 存在者를 想起하고, 따라서 感覺이 제 구

104) 韓雲菴, 前掲書, p.58.

105) Taylor, Commentary on Plato's, Timaeus, p.19.

106) Platon, Timaeus, p.56. a - c

실을 할 때, 영혼이 도움을 받아 「이데아」를 認識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영혼의 根本의 作用은 感覺이다.¹⁰⁷⁾

나. 音樂과 靈魂의 知覺

플라톤은 感覺으로서 知覺한 것은 眞理나 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同一性내지 固定性(不變性)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¹⁰⁸⁾ 感覺對象과 知覺 주체 사이에 感覺의 性質이 位置하고 있는데 플라톤은 感覺的 質들과 知覺을 엄밀히 區別하고 있다.¹⁰⁹⁾ 이러한 感覺的 性質에 대해 플라톤은 엄격하게 규정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視覺이나 聽覺이나 또는 그 밖에 다른 어떤 感覺器官을 통하여 무엇을 知覺하게 될 때, 우리는 이 知覺으로 부터 그것과 닮았거나 닮지 않았거나, 그것을 통하여 잊어 버렸던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해 내는 일이 可能하기 때문일세』¹¹⁰⁾ 또 말하기를 『영혼이 知覺의 수단으로서 육체를 사용할 때, 다시 말 해서 視覺이나 聽覺, 그 밖의 다른 感覺器官을 사용할 때, 육체를 가지고 知覺한다는 것은 곧 感覺을 통하여 知覺하는 것을 意味하니까』라고 하였다.¹¹¹⁾

우리의 신체 感覺器官에서 知覺이 성립되는지, 혹은 感覺器官을 통하여 영혼에 의하여 知覺이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플라톤은 感覺器官을 통해서 영혼이 知覺한다는 점을 分明히 했다. 영혼이 없이 눈과 귀로써만 知覺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말 하고 있다. 『우리가 感覺器官을 통해서 다른 感覺對象을 知覺할 때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이 항상 동일한 것으로써 知覺한다.』¹¹²⁾ 感覺을 統合하여 完全한 事物이 知覺을 이루고 또는 모든 感官에 共通되는 事物의 관계, 곧 그의 數, 時間, 公間上의 關係, 運動, 狀態를 看取하는 것은 別途로 갖추어진 中央器官인데 이것을 共通感官이라 하였다.

우리의 知覺에 주어진 수 많은 多様な “善한 것”에서 “하나의 善”을 志向함은 영혼 그 자체의 作業이며, 이는 곧 善의 實在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善한 것들만을 知覺하여야 한다. 그중 音樂은 善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으며 聽覺에 가장 알맞다고 하였다. 음악적 意味나 鑑賞과 表現 또는 音樂的 技能이라든가 知的理解, 거기에 音樂의 態度등과 같은 音樂의 事項은 形而上學的, 哲學的 諸 概念에 의하여 構成되어질 경우가 많으며 音樂教育은 知覺이라는 認識作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認識作用을 통하여 經驗에 대한 結果를 意味化하고 구체적인 심상으로 擬決되어 記憶에 남

107) 韓雲菴, 前掲書, p.58.

108) Cornford, F. M. Plato's theory of Knowledge pp.62 - 63.

109) Platon, Timaeus, p. 45b - 47c. 67c - 68d.

110) 崔鉉, 소크라테스의 對話錄<파이돈> (서울 : 集文堂, 1974), p.102.

111) 崔鉉, 上掲書, p.111.

112) Platon, theatetus, p. 184. c

게 되며, 이 結果과 知識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또한 音樂教育에는 이 知的인 것 외에도 매우 重要的 一面이 있는데, 곧 機能的인 要素이다. 理解되고 概念化된 知識에서 무엇인가 表現되고 音化하였을 때, 다시 音樂으로 환원되어 實存이 音樂으로 나타나고, 知覺에 感和되어 느끼게 되며 이러한 과정이 表現活動을 통하여 실현되는데, 이것이 音樂教育에 또한 重要的 方面이다.¹¹³⁾

다. 音樂과 靈魂의 情緒

플라톤은 造物主가 宇宙를 만들때 그 안에 可死 및 不死의 모든 生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고 했다. 신체 속에 可死의 영혼은 惡의 유혹을 크게 받는 쾌와 善을 휘방하는 고통이 주체할 수 없는 感情을 所有하였다. 횡포와 공포는 어리석은 조언이며, 분노는 이를 진정시키기 어려우며, 희망은 쉽사리 미로에 빠진다고 하였다.¹¹⁴⁾

音樂은 당시 教育課程에 重要的 역할을 담당했다. 情緒教育이 知能을 개발하고 體育이 신체를 發達시키듯이 音樂은 情緒와 道德性을 함양시키는 것이었다. 플라톤이 그의 異常國家를 위해 제안 한 教育計劃은 音樂에 이와같은 情緒와 道德教育의 機能을 맡겼던 것이다. 플라톤은 말하기를『音樂訓練은 어느 것 보다는 영향력이 강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리듬과 하모니는 영혼의 내면으로 파고 들어 그를 강력하게 휘어 잡고, 올바른 教育을 받은者の 영혼은 우아하게, 그릇된 教育을 받은者の 영혼은 그와 반대로 만들어 놓는다.……. 웬지 그 理由를 미처 알기 전인 젊은 나이에 眞情한 취미를 가지고 이 영혼의 참된 教育을 받는 者는 藝術과 自然의 태만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音樂이라는 친구를 알아보게 되고 그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情緒教育의 수단으로서 音樂의 重要性을 認定했지만 그는 또한 音樂이 갖는 美的, 心理的, 價値도 重視하였다. 音樂은 道德性을 모방할 수 있는 音樂特有의 能力으로 해서 特히 情緒教育에 적합하지만, 音樂은 또한 쾌락과 解放感을 제공하고, 좀 더 높은 차원에서 敎養教育의 하나로 편안한 知的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역시 重要하다고 했다. 音樂은 연민과 공포와 열과의 感情을 일으키게하고, 풀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靜化作用 또는 治療作用도 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音樂鑑賞에 관하여 어느 程度의 演奏技術을 要하며, 따라서 樂器訓練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音樂에 대한 직업적인 教育이 아니라 情緒教育으로써 機器의 演奏를 배우는 것은 大家의 技術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좋은 音樂인가를 배우고 그것을 즐길줄 알기 위함이다.¹¹⁵⁾

音樂教育에 特히 관계가 깊은 情緒(Emotion)와 情操(Sentiment) 그 素因은 一種의

113) 柳德熙, 音樂教育論, 前掲書, p.95.

114) Platon Timaeus, p.69 c - d.

115) 崔赫洵, 前掲書, p.337.

感覺作用(Feeling)이다. 情緒란 喜怒와 같은 감정이 비교적 強化된 상태이며, 그 특징 으로서는 대단히 강하고도 짧으며, 顔面의 表情이나 呼吸등의 生理的인 수반현상을 이 르키는 것, 知覺이나 性格에도 영향을 주어서 행동을 촉진시키는 것등의 여러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다. 이와같이 情緒는 極히 動的인 要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情動’ 이라고 부를 경우도 있다.

이로써 영혼은 保存하기 위해 精神에 적당한 活氣를 불어 넣어 音樂과 哲學을 공부 해야 하는 것이다. 즉 感情은 영혼을 위해 音樂과 哲學으로서 知覺되어진 것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理性을 支配하여야 하고, 善한 感情은 理性에 「이데아」를 想起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V. 孔子와 플라톤의 音樂思想과 그 特性

1. 孔子의 中和思想과 調和

오늘날 中華民國은 大德을 意味하고 <中>字와 <華>字를 택하여 나라 이름을 ‘中 華’라 부르고 있다. 中은 崇高한 理想을 지닌 哲學的 名詞이다. 哲學은 반드시 藝術 을 거쳐야 하고 中道는 반드시 禮樂을 거쳐야 비로소 사람 마음속 깊숙히 들어가고 모 든 백성들에게 보급될 수 있는 것이다.¹¹⁶⁾

《論語》에 이르기를 “先王이 백성을 다스리는 方法을 엄숙한 禮를 지키면서도 調和의 美를 잊어서는 안된다. 즉 禮는 民心을 節制하며 樂으로는 백성들의 소리를 和平하고 아름답게 하여준다.”¹¹⁷⁾

人間의 活動에 차례가 있고 過欲을 節制하는 중에 音樂의인 調和의 要素가 있어야 됨을 뜻한 것이다. ‘樂이 지극하면 원망이 없고, 禮가 지극하면 다투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孔子는 일찌기 宇宙 生命의 위대함과 오묘함을 깊이 體認하고 洞察하였다. 宇宙는 大化流行하고 生生不息하는 大生命이며 眞, 善, 美등을 무한히 온장하고 있는 價値의 整體였다. ‘乾元은 宇宙의 궁극적 始源이며 萬物의 형성과 변화의 道體이기에 …… 大宇宙 속에서 大和를 이루어 진정한 大利와 貞潔을 生命으로 하여 永遠히 生存을 영위 한다.’¹¹⁸⁾ 孔子에게 있어서의 宇宙와 人生은 永遠한 創造의 生命의 整體이자 厚德과 眞

116) 張其畇, 前掲書, p.290.

117) 韓國孔子學會, 前掲書, p.18.

118) <<論語>> 周易上經乾卦, 卦辭.

善美를 함유한 和諧 와 大和의 境界였다. 哲學과 倫理와 藝術이 하나로 人格化된 것이기에 聖者에게 있어서의 眞善美는 각기 독립된 삼이 아니요 一이다. 따라서 眞善美중 어느 한 門을 통하여 궁극적 경지에 도달하면 그 궁극적 경지는 곧 聖者の 경지라고 할 수 있다. 孔子에게 있어서의 人間과 自然은 불가분이다. 自然은 人類의 不朽의 經典이며 人類는 自然의 壯美한 文字였다.¹¹⁹⁾ 聖者の 生活과 生命은 순수한 氣象을 展現시키므로 그 生活과 生命경지는 倫理이자 哲學이며 宗教이자 藝術이다. 孔子 역시 聖者였기 때문에 그의 生活과 生命의 경지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孔子로 인한 中國의 中和의인 國民性은 바로 禮樂으로 말미암아 도야되면서 이루어졌다. 夔는 典樂을 만들어 中을 崇尚하는 德으로 삼아 少年들을 教育했고, 周公은 禮와 樂을 製作해서 禮樂으로 德을 밝히고 백성을 다스렸으니 이가 바로 中國古代文化의 특색이다.¹²⁰⁾ 《中庸》에 이르기를 「中이란 天下의 大本이요, 和란 天下의 達道이다.」¹²¹⁾ 라고 하였다. 天下의 일은 和로서 행해지고 和하지 않으면 행해지지 않는다. 또한 中和의 가르침에 의해 모든 개인의 好惡 哀樂을 극대화해서는 안된다. 우리들은 첫발자욱부터 모름지기 喜怒哀樂을 조절하는 공부부터 해서 그 度에 지나치는 곳을 없애고, 동시에 또한 그 부족한 곳을 보완해야 하나니, 이를 말해서 致中和라 한다. 모두가 一定한 度에 맞게만 하면 平靜으로 돌아가고, 사람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中和의 性이 실현되었다 하겠다.¹²²⁾

君子가 이르기를 「禮樂, 이 두 가지는 잠시도 우리 몸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며, 音樂을 알아 마음을 다스리면 곧 和易 하고, 正直하고, 자애스럽고, 양순한 마음을 지닐 수 있어 和樂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이 和樂하면 신체가 편안하고 신체가 편안하면 수명이 길다. 수명이 긴 것은 하늘과 같다. 하늘은 곧 神이다. 하늘은 말 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고, 신은 화내지 않아도 위엄이 있다. 이것이 樂을 이루어서 마음을 다스리는 效果이다.」¹²³⁾ 마음으로 사람을 가르치니 孔子가 武城에 도착하자마자, 弦歌의 소리가 들리었다. 音樂은 本性和 情緒를 길러주기에 충분하고, 더럽고 사악한 것을 상서롭고 조화로운 것으로 교화시키기에 충분하다. 禮는 文(形式)쪽으로 偏重되어 있고, 樂은 質(內容)에 가까우나, 그는 이 兩者를 交織함으로써, 人類의 政治生活의 매듭을 짓고 있다.

119) 方東美, 中國人的人生觀, p.143. 참조.

120) 張其鈞 前揭書, p.51

121) 王恕, 字忠實, 號石潭, 陝西三原人, 見「明儒學案」卷5, 「三原學案」, 上冊, p.55.

122) 唐君毅, 「哲學概論」下冊, p.1089, 1090, 學生書局)民國 63年)

123) 《禮記》樂記(44) p.71.

2. 孔子의 樂의 精神과 調和

東洋學에서 藝術, 특히 詩와 音樂은 一般學問과 不可分の 관계가 있다. 東洋學에 종사했던 옛날의 학자들이 例外없이 詩文을 남기고, 또 音樂에 관심을 보이고, 더 나아가 '孔子學'이라는 部分에 초점을 둔다면 그의 藝術精神은 간단히 지나쳐 버릴 가벼운 문제가 아닌가. 더구나 樂의 精神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詩와 音樂을 中心으로 藝術에 나타난 孔子의 樂의 精神을 살펴 보는 것은 분명히 意味있는 일임이 틀림이 없다.¹²⁴⁾

孔子는 일찌기 樂을 바르게 하고 樂을 가르치며, 樂을 論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樂은 孔子가 강력히 제창하여 大經에 넣어 大藝라 칭하였다. 孔子의 藝術에 대한 개념을 가장 적절히 대변하는 말로써《論語》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들 수 있다.

『眞理에 뜻을 두고, 德에 根據하고, 仁에 의지하며, 藝術에 즐긴다.』¹²⁵⁾ 물론, 이 경우의 藝術에 禮, 樂, 射, 御, 書, 數의 보다 광범위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만, 孔子가 志向하는 바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論語》 첫머리에 『배우고 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하나? 친구가 멀리서 찾아 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하나? 남이 몰라 주어도 개의치 아니 하니 또한 君子가 아니냐?』(學而)¹²⁶⁾하는 세 구절이 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學問의 樂趣, 友誼의 樂趣와 자신의 人格을 일러 스스로 만족하는 樂趣를 체험할 수 있다.

무엇인가 和識을 안다는 것(和之)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好之)보다 못하고, 또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것을 즐겨워하는 것(樂之)보다 못하다고 하는 孔子의 말은 곧 이제까지 서술해온 孔子에 있어서 樂의 精神을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전체에 걸친 말이다.¹²⁷⁾ 學이 樂之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學이라 할 수 없다.

孔子의 마음 속에는 늘 樂天的인 기운이 감돌고, 이른바, 근심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論語》 한 책에 樂字가 45군데나 보이고 苦字가 한 군데도 보이지 않는다. 孔子에 있어서의 樂의 個人, 社會, 國家에 대하여 깊은 영향을 주었다.

《禮記》의 「樂記」에 德政을 音樂으로 남김 없이 발휘하였다. 樂의 教育은 이것만으로도 추측할 수 있으니 오늘날 孔子의 藝術 哲學을 論할 수 있는 根據가 된다.

太史公은 「樂記」에서 樂을 論한 것과 荀子의 樂論을 합하여 樂書를 完成하였다. 《史記》의 樂書에 기록된 그 要点은 다음과 같다.

- (1) 鑄이란 人間의 情感이 부득불 발로된 것이요, 禮란 바꿀 수 없는 이치에서 생긴 것이다.

124) 韓國孔子學會, 前掲書, p.251.

125) 《論語》述而 6.

126) 世界思想大全集(2)論語第一卷, 學而篇, (서울:大洋書籍, 1975) p.51

127) 韓國孔子學會, 前掲書, p.254.

- (2) 대저 萬物이 人間을 感動시킴이 無窮하여 인간의 好惡이 절도가 없다. 道로써 欲望을 절제하면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는 데, 욕망 때문에 道를 잊어 버리면 미혹되어 즐겁지 않다.
- (3) 백성들이 절제하지 못하면 功이 없다. 先王이 禮樂을 제작한 것은 단지 배나, 입 눈과 귀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 때문이 아니다.
- (4) 樂을 演奏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禮를 실행하여 자기 몸을 가다듬는다. 자기몸을 가다듬으면 장중하고 경건하며, 장중하고 경중하면 위엄이 있다.
- (5) 樂은 마음 속에서 나오고 禮는 밖에서 제작된다. 위대한 음악은 반드시 평이하고, 커다란 禮節은 반드시 간단하다.
- (6) 樂이란 和同하기 위함이고, 禮란 別異하기 위함이다. 和同하면 서로 친하고, 別異하면 서로 공경한다.
- (7) 樂이란 宇宙의 調和요, 禮란 宇宙의 질서이다. 하늘과 人間은 서로 상통한다. 마치 그림자가 형태를 본뜨고 매아리가 소리에 응하는것 같이,
- (8) 仁은 樂에 가깝고, 義는 禮에 가깝다. 仁으로 사랑을 알고, 禮로써 바르게 한다. 이렇게 되면 《백성의 통치》가 실행된다.
- (9) 仁義로 권유하며 형벌로 속박한다. 禮, 樂, 刑, 政 이 네 가지가 達通되어 어짐이 없으면 王道가 갖추어진다.
- (10) 기쁘면 天下가 和合하고 성내면 暴한 자가 두려워 한다. 先王의 道는 樂이 융성하다고 할 만하다.
- (11) 王道政治를 하는 者는 樂을 만들고 禮를 제정하는데 成功하였다. 樂이 지극하면 원한이 없고 禮가 지극하면 다툼이 없다. 절을 하고 양보하면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禮樂을 일러 말한 것이다.
- (12) 正帝때엔 서로 樂을 따르지 않고 三代 때엔 禮를 서로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禮樂의 本質을 아는 자는 創作할 수 있고 禮樂의 外表를 하는 者는 서술할 수 있다. 創作하는 者들 聖人이라 하고, 서술하는 자는 현명하다고 한다. 綜合的으로 말 한다면 禮를 떠나서 樂을 말 할 수 없고, 또 樂을 떠나서 禮를 말 할 수 없다. 禮樂은 잠시도 분리 되어서는 안된다. 禮樂이 모두 얻어진 것은 德이 있다고 한다. 禮는 宇宙의 질서요, 樂은 宇宙의 調和이다. 禮의 精神은 질서이며 樂의 精神은 孔子, 人格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¹²⁸⁾

128) 張其昀, 前揭書, p.293.

3. 플라톤의 宇宙論과 調和

플라톤은 높은 音調 혹은 낮은 音調라고 생각되는, 때로는 그 불균형으로 인하여 調和를 이루는 現象은 마치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調和와 不調和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高音의 運動이 정지되기 시작하여 두音が 평등하게 되면, 低音은 高音을 不調和運動을 이루는 일이 없이¹²⁹⁾ 다만 高音의 消滅에서 低音이 시작될 뿐으로, 高音과 低音으로 된 單一하고도 混合된 소리를 내며, 여기서 哲學者가 아닌 普通사람들도 이것을 느끼고, 哲學者는 一種의 高尚한 회열에서 오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실로 人間界의 運動에서 찾아 볼 수 있는 神性하고도 調和있는 模寫인 것이다.¹³⁰⁾ 여기서 플라톤은 高音과 低音의 調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이데아」를 認識하게 되고, 世界와 「이데아」를 아는 哲學者는 특히 영혼을 순백하고 고귀하게 생각하였으며, 音樂의 法則으로서 宇宙構成과 造物主의 의도를 認知하게 되는 것이라고 여겼다.

또 플라톤의 造物主는 善하고 따라서 善한 것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은 균형이 잡혀 있다고 한다고 했다. 精神과 신체의 균형과 불균형으로 건강과 허약, 德과 不德을 이루는 것이다.¹³¹⁾

精神과 신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균형이 잡혀 있지 않으면 말은 職分을 수행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어 힘에 겨우며, 때때로 무례한 짓을 하고 자기 자신이 많은 惡을 저지르는 原因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者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知的인 思考에 專念하는 사람은 적당히 육신을 움직이고, 신체를 가꾸는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는, 精神에 적당한 활기를 불어넣어 음악과 哲學을 공부하여야 한다.

플라톤은 善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균형으로 調和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造物主의 뜻에 따라 創造되어진 世界는, 善하게 되기 위해서 무질서속에서 질서를, 그리고 균형을 찾아야 하고 運動을 하는 生命體는 音樂으로서 精神을 적당한 균형을 유지 시켜야 하는 것이다.¹³²⁾ 즉 플라톤은 音樂으로서 영혼의 내부에서 精神 世界를 品位있게 하여 자기 자신의 고귀하고 훌륭한 思考를 갖고 理性的 能力을 갖게 되어 可死的이고 可滅的인 世界에서 神의 섭리를 깨달아 本質의 高貴한 영혼으로, 不死의 存在가 되는 것이다.

129) 趙宇鉉, 國家, 소크라테스의 辯明, 第4卷(서울:三省出版社, 1982) p.143.

130) Platon, Timaeus, p.80 a-c

131) Platon, Timaeus .87. a

132) 崔 鉉, 前掲書, 〈파이돈〉 p.138.

音樂은 바로 宇宙構成의 法則과 同一한 法則으로 形成되어지고, 우리는 音樂을 통하여 宇宙構成과 「이데아」를 깨닫게 되며, 시체와의 균형으로 善하게 되어 本來의 性質로 돌아가 永遠한 幸福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음성과 청각에 적합한 音樂은 調和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뮤즈」에게 봉사하는 지혜로운 자는 영혼의 회전에 유사한 運動을 하는 調和를 오직 영혼의 진행상 혼란은 장차 일어날 不調和를 시정하여 영혼을 자기자신에게 調和시킬 수 있게 하려는데 있다. 또한 神들이 韻律을 人間에게 준 것도 같은 理由이며, 人間에게는 不規則적으로 우아하지 못한 행실이 많아서 이것을 시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도 플라톤은 人間이 音樂을 좋아 함으로써, 本能인 善한 存在로, 調和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이 基本的인 原理에 입각하여 人間 각자의 個性을 發揮하는데 그 個性대로의 價値를 認定할 수 있고, 이개체는 다시 社會的인 제체에 順應調和 함으로써 더욱 빛나는 社會를 形成할 수 있는 自由를 지니며, 그 自由意志에 따라서 無限히 發展하는 것이니, 그 發展하는 모습은 매우 다채로운 것으로 人間 자체가 本來부터 지니고 있는 自然的인 性能에 의하여 音樂을 같이 한, 宇宙의 神祕와 光明과 照應이 調和되어, 무한한 神明의 德을 感得한다.

4. 플라톤의 影像・象徵과 調和

플라톤은 再現의 藝術이 간접적인 실재라고 생각했다. 精神의 관념을 感覺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模倣」이라는 말로 表現했다. 그와같은 것은 音樂의 경우 현저한 것이다. 어떠한 리듬이나 또는 확실히 어느 멜로디가 어떠한 型의 生命이라든가 氣分の 模倣이라고 할 때,¹³³⁾ 그것은 影像(image)과 象徵(Symbol)사이의 限界를 넘어선 것으로 생각된다. 音樂이란 다른 藝術과는 本質적으로 다른 것으로써, 그 자체로 獨立인 藝術이며, 또한 다른 藝術처럼 現實의 模倣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意志, 그 자체의 言語를 직접 실현으로부터 가장 독자적인, 가장 근원적인, 가장 원칙적인 啓示로서 말하는 藝術적인 것이다.¹³⁴⁾

音樂은 그 자체로서는 感情의 직접적인 言語라고 보아도 무방할 程度로 우리의 內面에 대하여 意味심장한 것이거나 깊은 感動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音樂은 詩로서 太古로 부터 결합되어 있었으므로, 매우 많은 象徵의 수단의 커다란 영역을 정복했을 때 비로소 균형의 조화를 이룬다. 절대음악이란 박자나 여러 가지 強度를 지닌 音樂

133) 金相善, 前掲書, p.76.

134) 金基應, 前掲書, (7), p.118.

일반이, 기쁨을 주는 音樂의 未開상태에 있어서 形式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랜 發展을 거듭해오는 동안에 音樂과 詩가 調和되어, 드디어 音樂形式이 概念이나 感情에 연결된 후에 詩가 없어도 지금에 와서는 理解力에 호소하는 諸形式의 象徵性이거나, 어느 하나인 것이다.¹³⁵⁾

音樂의 장, 단과 曲調는 우아함을 지니면 영혼속 깊숙히 가장 기운차게 들어가 그것을 강하게 파악하는데, 만약 사람이 바르게 키워지면 우아하게 만들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혀 반대의 것을 만들기 때문에 音樂에 있어서의 教育은 가장 重要的 것이다.¹³⁶⁾ 따라서 그 音樂으로 바르게 키워진 사람은 흠이 있다든가, 아름답지 않다든가 하는 것들을 가장 재빠르게 느껴서, 당연히 불쾌해 하지만, 아름다운 것들을 찬양하고, 그의 영혼 안에 기꺼이 받아들여 그 것들로 養育되어서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音樂의 보편적인 言語에다 맞춘 이러한 개개의 人生의 모습은 결코 全面的인 必然性을 가지고 音樂에 결부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대응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均衡의 調和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즉 이들 影像은 音樂이 단순한 形式의 보편성으로 表現하고 있는 것을, 現實의 限定性으로 表現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音樂은 모든 形式에 先行하는 가장 內面的인 核心, 즉 사물의 심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藝術에 의존하고 있는 美의 概念에서 出發하여, 音樂에 대해서도 造型藝術의 作品에 要求되는 것과 같은 效果, 즉 아름다운 形式에 대한 쾌감을 불러 일으킬 것을 要求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音樂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造型藝術과는 전혀 다른 美學的 原理로 측정되어야 하며 一般的인 美의 범주로 側定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V. 結 論

東洋의 孔子나 西洋의 플라톤은 教育을 「人間行動의 計劃인 變化」라고 본 것은 두 사람의 共通된 教育思想이다.

이것은 곧 人間の 知識과 思考力, 態度, 價值觀, 性格 등을 우리가 바라는 教育目的과 教育궁극의 目的이 지니고 있는 知, 情, 意 등의 모든 潛在의 可能性을 最大限으로 發達시키는데 있다고 하겠다.

音樂教育은 音樂을 통하여 人間の 精神的 內容과 情緒의 態度로서 人間成長을 촉진하는데 그 意義를 지니고, 또한 教育이 試圖하는 目的의 一翼을 遂行하는데 있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音樂教育은 音樂의 本質위에서 이루어지는 教育으로 孔子와 플라톤의 音樂教育思想을 대개 다음과 같이 要約해서 說明할 수 있겠다.

135) 金基應, 上揭書, (8), p.170.

136) 金祥太, 音樂美學, (서울:世光出版社, 1983), p.46.

첫째, 孔子가 플라톤의 音樂教育思想은 時代와 場所의 地理의 여건으로 인한 환경의
차이는 달랐으나 그들의 中心思想은 「禮樂論」과 「感性論」이 當時의 人間生活에 있어
主流를 이루었고, 歷史의인 흐름속에서도 古代로부터 古典, 中世, 近世, 現代에 이르기
까지 끼친 영향은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이다.

둘째, 孔子와 플라톤에 있어 음악의 本質은 「德」과 「節制」「調和」라 하였따. 이것은
사람들이 社會生活을 하는데 꼭 必要한 基本概念이다.

공자는 畢生의 精力을 다해 教育事業에 從事하였고, 몸소 音樂生活을 實踐하면서 自
身の 行動으로 模範을 삼았으며, 學을 講論하고 仁으로 道를 넓히어 後生의 앞길을 터
주었으니, 中國은 물론, 東洋의 音樂教育哲學과 教育方法은 실로 孔子로부터 始作한 것
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가장 순수한 藝術을 音樂이라 하였고, 이 音樂은 言語의 仲
介를 거치지 않고 바로 人間의 心情에 호소해 오므로, 禮樂의 根本에 도달되어 人間의
人格을 完成시켜주는 것이 오로지 音樂教育이라고 孔子는 보았던 것이다.

한편 플라톤의 有名な 「國家論」가운데서도 音樂이 教育的인 價値를 가진다는 思想을
특히 자세히 논하고, 音樂의 리듬과 멜로디는 教養있는 젊은이의 마음에 作用해서 다
른 方法으로는 얻을 수 없는 精神의 調和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었다. 人間은 感性界에
의해 「이대어」를 認識하므로 靈魂의 感覺, 知覺, 情緒로서 音樂의 法則은 宇宙構成과
造物主의 의도를 認知하게 되는 것이었다. 어떤 音調, 즉 族法과 멜로디 樣式은 人間의
性格을 強하게 하고, 또한 어떤 音調는 그것을 弱하게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勇氣와
節制를 위한 教育이었으며, 특히 體育과 區別되는 音樂教育은 節制에 대한 教育이었고,
또 그것은 아름다운 것, 즉 그 자체가 原來 人間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는 것에 대한
사랑을 意味한 것이었다. 狹義의 엄밀한 의미의 定義는 節制, 혹은 節制와 勇氣의 온전
한 結合에서 우러나온다고 할 수 가 있겠다. 그러므로 思想史는 一般史의 核이라고 한
다.

孔子의 學說은 오늘날 中國思想의 核心이요, 그 主流를 이루었으며, 그의 人格은 中
國文化를 代表하는 표상이 되었다. 禮樂은 生活의 藝術이 되었고 教育의 方法에 의해
서만 人間育成의 目標을 達成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東洋文化를 藝術의이고 道德의이
라고 한다면 반면에 東洋文化는 科學의이고 法律의이어서 思考와 行動樣式은 廣義의인
面에서 보았을 때 完全히 다른 哲學의 思想의 文化를 創達하는데 서로 見解의 差異가
있었던 것은 事實이었다.

과거 옛날의 音樂教育은 眞正한 藝術教育이라기 보다는 教化에 重點을 두었던 것임
에 짐작할 수가 있다. 音樂에 의하여 人間을 기르는(즉 教育하는……)것이 아니라 歌
詞속에서 德目을 끌어내고 人間을 教化하는 德目的 道義教育의 手段이었을 뿐이었다.
歌曲의 音樂的 體得을 위하기보다는 歌詞, 그 자체를 「德性の 涵養」「情緒陶冶」라고
하는 道德教育의 目標에 도달시키는 것이었다라고 하겠다.

本 研究는 여기에서 孔子와 플라톤의 音樂教育思想이 時代와 地域의 모든 試鍊을 克服하고 지금까지 살아 남아 왔음을 再認識하여 그 教育的 價値와 生動的 힘엘 다시 한번 注視해야 한다고 보았다. 물론 우리는 音樂教育뿐 만 아니라 수 많은 것을 西歐로부터 들여왔고, 또 한 크나 큰 文化的 活動의 必要性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東洋에 대한 무관심을 변호하는 理由는 못될 것이며, 어쨌든 우리나라는 古代로 부터 近世의 思想的 背景이나 構造는 이른바 儒敎라는 것이 中國에서 왔고, 孔子, 孟子, 夫子 그리고 플라톤 등의 外的인 要因으로 말미암아 刺戟을 받아, 그 속에서 우리는 文化創造를 이룩하느라고 애를 썼던 것이었으며, 現在에 이르러 끼친 영향은 말할 수 없는 지대한 歷史를 이룩하였다 하겠다.

또한 音樂教育의 本質의 理念의 하나로서 아름다운 音樂은 사람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고 따뜻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豐饒한 세계를 향하여 이끌어가는 先動的인 힘이 있는 것이다. 더우기 現代와 같은 人間喪失의 時期에 사는 사람들은 시달린 마음을 위로하고, 내일의 生活을 위한 활동으로서 훌륭한 音樂을 渴求하게 된다. 따라서 本 矯는 生氣넘치고 균형잡힌 孔子와 플라톤의 音樂生活을 통하여, 그동안 喪失된 人間을 되찾는 길은 곧 音樂教育이 담당하여야 할 중요한 任務이며, 美의 享愛와 表現의 能力을 기르는 音樂教育은 다른 어느 敎育보다도 調和의이고 生活的인 가장 바람직한 敎育이라고 確信한다.

參 考 文 獻

1. 康俊彰, 西洋古典古代 思想家와 思想史論, 서울:法文社, 1982.
2. 金敬琢, 中國哲學思想史, 서울:東國文化史, 1955.
3. 金基應, 大世界哲學的文學全集(7·8), 서울:自文堂, 1978.
4. 金祥太, 音樂美學, 서울:世光出版社, 1983.
5. 金相善, 文藝思潮論, 서울:日新社, 1981.
6. 金普均, 音樂의 歷史와 思想, 서울:學文社, 1984.
7. 金瑩洙, 四書五經(禮記) (7·8) 서울:韓國敎育出版社, 1984.
8. 白基豐, 西洋音樂史, 서울:現代樂譜出版社, 1979.
9. 柳德熙, 世界音樂敎育史, 서울:學文社, 1983.
10. 柳德熙, 音樂敎育論, 서울:開文社, 1983.
11. 柳德熙, 音樂敎育研究, 서울:學文社, 1979.
12. 尹良錫, 共著, 音樂, 美術科敎育, 서울:韓國能力開發社, 1975.
13. 李泰極, 時調概論, 서울:새글社, 1974.

14. 李乙浩, 한글論語, 서울:博英文庫, 1977.
15. 李貞熙, 環境推移에 따른 嗜好教科의 變因調査研究, 漢陽大教育大學院, 1985.
16. 李惠求, 韓國音樂研究, 서울:國民音樂研究會, 1957.
17. 張其昀, 孔子學說의 現代的意義, 서울:螢雲出版社, 1981.
18. 金鎬喆, 플라톤의 音樂教育思想研究, 延世大教育大學院, 1985.
19. 趙宇鉉, 國家, 소크라테스의 辯明, 서울:三省出版社, 1982.
20. 車桂環, 論語, 서울:을유문화사, 1975.
21. 崔赫洵, 永遠한 智慧를 찾아서, 서울:經營文化社, 1977.
22. 崔 鉉,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對話錄, 서울:集紋堂, 1974.
23. 崔東熙, 金永喆, 申一澈, 哲學, 서울:日新社, 1974.
24. 崔東熙, 金永喆, 申一澈, 尹絲淳, 哲學概論, 高麗大學校出版部, 1981.
25. 韓雲菴, 西洋哲學史思想評, 서울:昌震社, 1976.
26. 黃友棟, 中國音樂的傳統精神, 見「中央月刊」(民國 64年 4월)
27. 東方學研究所纂, 東方學志, 第六輯, 延世大學校, 1963.
28. 現代人講座編纂會, 學問과 藝術, 서울:博文社, 1962.
29. 世界思想大全集(2), 孔子・孟子, 서울:大洋書籍, 1975.
30. 韓國孔子學會, 孔子的 思想과 現代, 서울:思社研, 1985.
31. 原色世界百科大事典(2), 서울:學園社, 1973.
32. 「音樂大事典」編纂會, 音樂大事典, 서울:신진 出版社, 1972.
33. 淺香淳, 新正訂大音樂家の 肖像と生涯, 東京:音樂之友社, 1971.
34. 供田武嘉津, 世界音樂教育史, 東京:音樂之友社, 1928.
35. 神田豐穗, 世界大思想全集(1), 東京:春秋社, 1928.
36. Charles Loonhard & Robert W. House, Foundations and Principles of Music Education, New York:Mac Graw-Hill Book Company, 1972.
37. 高 明, 論語中的樂教「孔學月刊」
38. 方東美, 中國人的人生觀.

ABSTRACT

A Study on the Thought of Music Education by Confucius and Plato

Kim, Jong—Pu

For all the ages and countries of the world, music has occupied the most portion for civilizing the humanbeing, which we can figure out how much the old great men devoted themselves to the music education

Through reviewing the effect at that time left on the music education by Confucius, the Great Sage who was a source of oriental origin thought and Plato, the great philosopher in Greece who was left the imperishable footprint of the western ideas, we come to understand the will of the importance of its emphasis by surpassing of the age and place for music education.

I studied the background of philosophic ideas and educational value music form "teor" or "Ye—Ak" of "Ye—Ki" and the Analects of Confucius(B.C 552—479, by which I have understood the necessity of music education. Also Plato(B.C 427—347) built up the view of value of music education by his work "Aesthetics" and "theory of State", and through his cognition of 'Idea' in the phenomenal world he made the theory of music education actuality; namely music and harmony of balance making effect form space formation to the humanbeing's soul.

There was about a hundred years gap between Confucius and Plato, and distance between them to be orient and western, but they are of the same opinion at the point that it must root on the music education, most of all, for the true human education to make harmony with moral education.

By the country and age the music education undergoes a change of enforcement way, and the trend of music thought and educational method also was variously built up the social organization. But most of all, the key point of view in the idea of music education is just to success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times through a mediator, music, to cognize enjoying to be more cozy and richness of mind out of the flood of material civilization to be growing hard—hearted, and to contribute to a fluence of each racial culture by closed mutual understanding of culture and arts between the orient and western.